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화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taste  
for leisure research of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2024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곽민정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화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taste  
for leisure research of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2024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이 논문을 광민정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4년 2월

주심 최 현식 (인)

부심 김 영두 (인)

위원 김 일기 (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화 연구

## 국문초록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곽민정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를 연구하기 위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여가 취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요인과 개념에 관한 전문가집단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포함한 개방형 설문을 제공하였다.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설문에서 여가 취향 형성에 관한 28가지 요인과 개념 정의가 도출되었다.

2차 델파이 설문은 1차 설문을 통해 도출된 요인과 개념으로 구성된 폐쇄형 설문지로 여가 취향 형성 요인과 개념 정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도구로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을 활용하였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항은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따라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수정한 문항은 재구성하여 3차 델파이 설문에 활용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은 2차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항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3차 설문을 통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항은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삭제를 결정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형성 요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보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는 신



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건강, 경제력과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을 포함한 여가 배경이 있었다. 사회적 요인에는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을 포함한 생활 여가 인프라, 생애 주기별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주요 타자가 있었다. 문화적 요인에는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을 포함한 귀환 전 거주국 여가 문화,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을 포함한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가 있었다. 정보적 요인에는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을 포함한 지식,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을 포함한 시기에 따른 경험이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의 개념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는 여가 취향 형성의 개인 내적동기에 관한 결과가 없으며, 연구의 초점이 다수의 인구 비율을 가진 특정 국가에 맞춰졌을 가능성과, 체류 자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취향에 관한 다양한 요인과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여가정책과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 델파이 방법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내용 .....	3
<b>II. 이론적 배경</b> .....	<b>5</b>
1. 귀환 재외동포 노인 .....	5
2. 노년기 여가 활동 .....	7
3. 여가와 취향의 관계 .....	10
<b>III. 연구 방법</b> .....	<b>13</b>
1. 델파이 방법 .....	13
2. 델파이 전문가 .....	14
3. 델파이 설문 구성을 위한 선행연구 .....	15
4. 자료수집 및 분석 .....	18
5. 윤리적 고려 .....	20
<b>IV. 연구 결과</b> .....	<b>22</b>
1.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	22
1) 1차 델파이 결과 .....	22
2) 2차 델파이 결과 .....	23



3) 3차 델파이 결과 .....	52
2.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	59
1) 1차 델파이 결과 .....	59
2) 2차 델파이 결과 .....	60
3. 소결 .....	61
<b>V. 논의 및 결론 .....</b>	<b>65</b>
1. 논의 .....	65
1) 여가 취향 결정요인 .....	65
2) 여가 활동 취향의 개념 .....	70
2. 결론 .....	71
3. 제언 .....	72
참고문헌 .....	74
[부록 1] 연구 개요 및 1차 델파이 설문지 노인 전문가용 .....	83
[부록 2] 1차 델파이 설문지 여가 전문가용 .....	89
[부록 3] 1차 델파이 설문지 재외동포 전문가용 .....	92
[부록 4] 2차 델파이 설문지 .....	95
[부록 5] 3차 델파이 설문지 .....	108
Abstract .....	115



## 〈 표 차례 〉

〈표 1〉 자문위원 일반정보 .....	14
〈표 2〉 CVR의 최솟값 .....	19
〈표 3〉 델파이 조사 종결 수준 .....	20
〈표 4〉 1차 델파이 조사 설문 범주화 .....	23
〈표 5〉 신체적 건강 타당도 .....	24
〈표 6〉 정신적 건강 타당도 .....	25
〈표 7〉 하위 범주: 건강 타당도 .....	25
〈표 8〉 노후 준비 타당도 .....	26
〈표 9〉 한국어 숙련도 타당도 .....	26
〈표 10〉 여가 활동 시간 타당도 .....	27
〈표 11〉 하위 범주: 여가 자원 타당도 .....	27
〈표 12〉 문항 7 수정 지시 사항 .....	28
〈표 13〉 거주국에 대한 향수 타당도 .....	28
〈표 14〉 자신감 부족 타당도 .....	29
〈표 15〉 문항 9 수정 지시사항 .....	29
〈표 16〉 강박적 성향 타당도 .....	30
〈표 17〉 문항 10 수정 지시사항 .....	30
〈표 18〉 히스테리 성향 타당도 .....	31
〈표 19〉 문항 11 수정 지시사항 .....	31
〈표 20〉 하위 범주: 심리 타당도 .....	32



<표 21> 문항 12 수정 지시사항 .....32

<표 22> 상위 범주: 개인적 요인 타당도 .....33

<표 23> 물리적 접근성 타당도 .....33

<표 24> 프로그램 전문성 타당도 .....34

<표 25> 하위 범주: 생활 여가 인프라 .....34

<표 26> 현재 동반자 타당도 .....35

<표 27> 생애 주기별 동반자 타당도 .....35

<표 28> 귀환 전 인적 네트워크 타당도 .....36

<표 29> 문항 19 수정 지시사항 .....36

<표 30>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타당도 .....37

<표 31> 이성 노인과의 관계 타당도 .....37

<표 32> 문항 21 수정 지시사항 .....38

<표 33> 하위 범주: 주요 타자 .....38

<표 34> 상위 범주: 사회적 요인 타당도 .....39

<표 35> 기존 문화 환경 타당도 .....39

<표 36> 전통적 여가 타당도 .....40

<표 37> 정치·사회 체제 타당도 .....40

<표 38> 문항 26 수정 지시사항 .....41

<표 39> 하위 범주: 귀환 전 거주국 문화 타당도 .....41

<표 40> 문화 이해·적응 타당도 .....42

<표 41> 새로운 문화 환경 타당도 .....42

<표 42> 여가문화 인지 타당도 .....43



<표 43> 문항 30 수정 지시사항 .....	43
<표 44> 문화 차이 타당도 .....	43
<표 45> 노인 여가문화 정책 타당도 .....	44
<표 46> 문항 32 수정 지시사항 .....	44
<표 47> 하위 범주: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타당도 .....	45
<표 48> 상위 범주: 문화적 요인 타당도 .....	45
<표 49> 프로그램 정보 타당도 .....	46
<표 50> 진지한 여가 활동 타당도 .....	46
<표 51> 하위 범주: 지식 타당도 .....	47
<표 52>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타당도 .....	48
<표 53>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경험 타당도 .....	48
<표 54>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경험 타당도 .....	49
<표 55> 하위 범주: 시기에 따른 경험 타당도 .....	49
<표 56> 상위 범주: 정보적 요인 타당도 .....	50
<표 57> 2차 델파이 설문 결과 .....	52
<표 58> 하위 범주 범주화: 여가배경 .....	53
<표 59> 괄호 내용 삭제 여부 .....	53
<표 60>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	54
<표 61> 이성 노인과의 관계 타당도 .....	54
<표 62> 문항 4 수정 지시사항 .....	55
<표 63> 사회 체제 타당도 .....	55
<표 64> 하위 범주: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	56



<표 65> 노인 여가문화 정책 타당도 .....	57
<표 66> 개념어 범주화 .....	58
<표 67>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 개념 .....	59
<표 68>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 .....	61
<표 69>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화 .....	62



## [ 그림 차례 ]

[그림 1] F계열 비자 취득 인구: 65세 이상 .....	6
[그림 2] 국적별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현황 .....	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늘어난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b). 노인의 여가시간 증가 원인은 의학 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 은퇴, 자녀 독립·분가로 인한 역할 상실 등이 있다(김수지, 2022; 정선미, 이운석, 2022; 통계청, 2021). 이는 노인에게 선택권이 없는 비자발적 원인으로, 노인들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여가시간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박혜련, 허식, 2019; 전형상, 김선희 외, 2020).

노인에게 강제적으로 증가한 여가는 물리적 시간 증가가 고민일 뿐 여가 자체는 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여가는 노인의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관심사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다(Belo, Pocinho, et al., 2016). 이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연결성을 촉진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높여준다(김유나, 김성겸, 2022; 이상희, 임수아 외, 2021).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여가를 찾는 일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여가 활동은 7가지로 나뉜다(Kaplan, 1960). 첫째, 경제성을 기반하는 노동과 반대 활동, 둘째, 즐겁거나, 즐겁다고 회상할 수 있는 활동, 셋째, 의무성이 적은 활동, 넷째, 심리적으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활동, 다섯째, 문화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활동, 여섯째, 심각성과 중요성의 정도가 다채로운 활동, 일곱째, 놀이 요소가 포함된 활동이다(전형상, 김선희 외, 2020).

여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취향과 선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에게는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이 있으며, 취향에 맞는 여가에 참여하면 이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Hu, 2021). 취향은 사람의 일생 경험, 문화, 가치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Skandalis, Byrom, et al, 2017), 여가, 문화, 소비 등을 결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서문식, 이섯별 외, 2020;



이훈지, 최혜경, 2020; 임재구, 김덕중, 2015). 따라서 취향은 여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취향은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취향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직접 선택했다는 기억을 강화하고 이것을 자기 삶의 서사 안으로 계속해서 확대한다. 그렇기에 취향에 따라 선택한 ‘무언가’는 애착을 만들어 낸다(유승호, 2021).

이러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노인에게 폭넓은 여가를 제공하고 취향에 맞는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자신의 문화 배경에 따라 특정 종류의 여가에 끌리기도 하며, 문화에 따라 세대를 통해 전해진 규범적인 패턴으로 인한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Mitchell, Wister, et al, 2021).

65세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인구 고령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 구성비는 2020년 1.1%에서 2040년 2.2%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b). 또한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 이민 증가와 세계화로 한국의 노인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노인층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서종근, 왕영민 외, 2023). 고령화 문제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층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대응책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주민과 달리 이민자가 가진 문화적 배경의 이질성으로 인해 여가·문화 선호가 달라짐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노인은 그들의 출신 국가와 문화, 생활 경험 등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한국 노인과는 다른 여가 취향을 가진다(Bertacchini, Venturini et al, 2021). 중국동포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인 카드놀이나 마작, 장기를 즐기며(정연학, 2015), 고려인들은 연극, 음악, 춤 등의 문화적 활동을 선호한다(홍세희, 조기숙, 2017). 또한 재미동포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 여가를 즐기지는 않았지만, 한국문화와 한국성을 담은 여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주연, 2008; Kim, Kleiber et al, 2001). 따라서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과 문화 배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여가 활동을 제안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활동적인 삶을 지속하고, 여가를 통해 정주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여가를 고려할 때, 취향은 여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취향에 따라 선택한 여가 활동은 더 애착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최근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정관, 2023). 권익 보호와 지원에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생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은 고령화와 다문화라는 두 가지 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들에게는 한국 노인과 마찬가지로 긴 여가시간이 주어졌지만, 거주국과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은 여가생활에 장벽이 된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의 동시적인 특성을 가진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를 연구하기 위해 이들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취향은 무엇인지 개념화하고,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여가 취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및 내용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은 아직 이론적 근거가 미약한 영역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은 단순히 개인 취향을 넘어 문화와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진 이론적 지식과 실제 사례에 관한 경험은 본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한다.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상적이며,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은 어떠한가?

첫 번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연구 문제이며, 두 번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취향을 개념화하는 연구 문제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결정요인 탐색과 개념화를 위해 2장에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노년기 여가 활동과 여가와 취향의 관계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 소개와 전문가 선정 과정, 설문 구성과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 그리고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고려 사항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델파이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과 개념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결정요인과 개념을 논의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귀환 재외동포 노인

재외동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sup>1)</sup> 법령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자는 외국국적동포라고 칭한다. 본 연구는 한국으로 귀환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기에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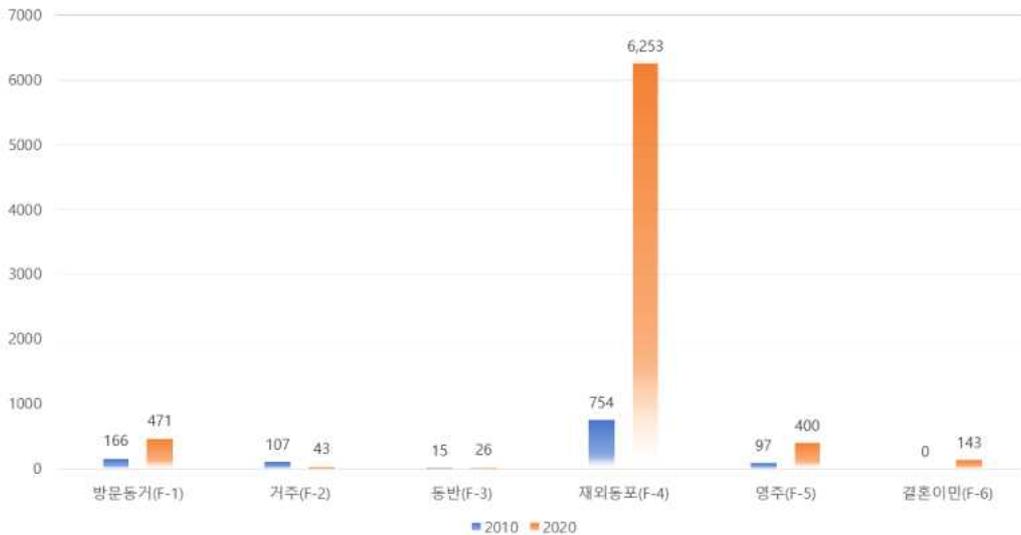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sup>2)</sup>을 제정하여 재외동포가 모국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이후 200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거주국에 따른 동포 차별을 줄이고자 2007년에는 방문취업제(H-2)를 도입하고 재외동포(F-4) 자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9년 7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재외동포의 범위에 4세대 이후 동포가 포함되었으며, 2022년 1월 3일부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 자녀도 재외동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확대 및 시행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증가에 비례하여 재외동포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류 외국인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서종근 외,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다음 [그림 1]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F 계열 체류 자격을 가

1)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이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 1999. 12. 3.] [법률 제6015호, 1999. 9. 2.,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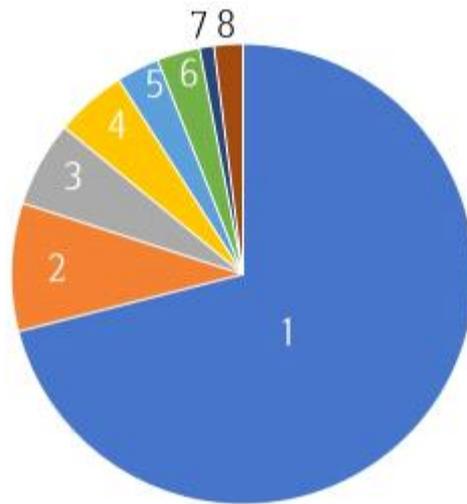
진 외국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 증가를 나타낸다.



[그림 1] F 계열 비자 취득 인구: 65세 이상(서종근, 왕영민, 심혜진, 2023 재구성)

F 계열 중 재외동포(F-4)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보임에 따라 한국으로 귀환 후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는 주로 중국,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국적에 따른 현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은 다양했지만, 인구수로 볼 때 재외동포 소지자의 약 70%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으로 귀환하게 된 다양한 동기가 있다. 이들은 자발적, 또는 강제 이주로 떠난 고향에 관한 그리움으로 인해 문화적 뿌리와 가족적 연결을 유지하고자 귀환하거나, 생계적인 목적으로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귀환했다(곽민정, 함보연, 2023; 김영순, 외, 2020).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되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귀국하는 이들도 있었다(박형아, 진기남 외, 2020). 일부 재외동포들은 한국으로 귀환하여 가족 이산, 언어 습득의 어려움,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생활 시설 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 인프라 및 지원 취약, 한국인과의 교류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곽민정 외, 2023).



1 중국 2 미국 3 러시아 4 우즈베키스탄 5 캐나다 6 카자흐스탄 7 포주 8 기타

[그림 2] 국적별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현황(통계월보, 2023.09.)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한국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들이 살았던 국가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한국의 배경과 상황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거주국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성격을 띤다(박신규, 2019). 그렇기에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의 적응 과정은 입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2. 노년기 여가 활동

여가는 하루 중 근로 시간과 생리적 필수시간, 가사 활동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한 휴양, 취미, 그리고 스포츠 등의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2a). 국민의 삶과 일의 균형, 삶의 만족도가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수렴됨에 따라 국민의 여가를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b).

베이비붐 세대와 시니어 세대는 건강, 개인의 즐거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마

음의 안정을 위해 여가를 즐긴다(정대영, 2021). 이들이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은 TV 시청, 산책 및 걷기, 모바일 콘텐츠·VOD 시청, 잡담·통화하기·문자 보내기, 쇼핑·외식, 친구 만남·이성 교제·미팅·소개팅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a). 노인들이 주로 즐기는 여가는 다소 정적인 활동으로 나타났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화되면서 노인 여가의 트렌드가 적극적 여가활동,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b).

노인 여가활동은 노년기 인생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강조하고 있다(이현진, 이록빛 외, 2022). 먼저 여가활동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김유나, 김성겸, 2022). 둘째, 단체 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와 같은 사회적인 여가활동은 노인들의 인간관계를 강화해 고립감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해준다(박경하, 이병준, 2022). 셋째, 걷기나 체조와 같은 신체 활동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며, 정신적 여가활동은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이경희, 문보영 외, 2023). 넷째, 여가활동은 새로운 학습의 기회와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노인들이 자기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아실현의 경험을 하게 해준다(이상희, 임수아 외, 2021).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노년기에 여가활동은 그들에게 삶의 깊은 성찰과 의미를 찾아나가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강희엽, 이철원 외, 2017). 다양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인 여가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서 노년기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노인 여가 연구 주제어의 동향을 분석한 김경식(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여가 연구 주제어인 생활, 만족, 활동, 복지, 프로그램, 건강, 스포츠, 우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최근 노인 여가 선행연구 분석은 다음과 같다.

오세숙(2023)은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의 여가생활과 여가활동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동반자 유형, 여가활동 유형, 여가 공간, 여가활동 빈도를 포함한 여가활동 특성 분포 차이를 검정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휴식 활동이었으며, 매일, 혼자 여가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여가 인

식, 여가 자원 활용, 행복 수준에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영신과 김매이(2023)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노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만족과 우울을 차별 경험과 관광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과 관광 경험의 관계, 우울과 관광 경험의 관계에 매개함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관광에 참여할 때 경험한 차별은 우울감을 증가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여가 복지에 관한 연구는 복지 시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박현남과 허수연(2023)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여가 복지 시설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여가 제약 요인으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프로그램 부족,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가 부족으로 인한 정서는 무료함, 속상함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동시에 여가 참여와 배움의 욕구를 드러냈다. 이들에게 여가활동의 의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생활의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현재민과 김지유(2023)는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였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감을 얻어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 참여자들은 즐거움과 활력,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에 지속해 참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찬우와 장인수(2023)는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노인인구가 이동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군구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노인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수, 노후 주택 비율, 의료기관 종사자 수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가 시설은 노인들이 지역 이동을 결심할 만큼 중요한 복지자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참고한 선행연구의 주제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일상에서 노인 여가 연구도 중요하다. 문태영, 손재영 외(2023)의 연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노인들의 여가불만족 원인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 여가활동 유형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였다. 여가만족은 교육, 가구원 수, 소득, 거주지 등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영향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체력,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의 여가 제약 요인이 여가 불만족의 원인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여가는 노년층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여가는 휴식,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사회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노년층의 여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유지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노년층의 확대로 구분되기 시작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의 여가 활동 차이는, 노년층 내부에서도 다양한 여가의 필요와 선호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관광과 같은 활동적 여가는 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주며, 이는 여가가 노년층의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가 복지 시설은 노인들이 지역 이동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가 복지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가 복지자원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노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의 여가 차이와 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도 다양한 여가 필요와 선호를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정서적 건강과 정주민과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가 복지자원의 확충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에게도 중요하며, 특히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이 필요하다. 노인 여가의 중요성과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관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여가와 취향의 관계

노년층의 여가에 관한 관심과 요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2a). 여가에 관한 구매력과 시간을 충분히 보유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활동이나 문화, 예술, 스포츠를 관람하고 참여하는 활동의 비율이 높아졌다(최순화, 2020). 반면 휴식 활동이나 취미·오락 활동의 비율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생겼던 참여·관람 행위의 제약이 사라져 다양한 여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22a).

여가 소비는 여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적합한

여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개인적인 자원 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로 이루어진 신 노년층은 기존의 장년층과 비교할 때 더 적극적인 여가 소비자라고 볼 수 있다(유은영, 진현정, 2016; 최순화, 2020). 노년층의 여가 활동 영역은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의 휴식 활동, 전시회·영화 관람 등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등의 취미활동, 동호회·자원봉사 등의 사회활동 등 다양하다(정은영, 2020).

여가 취향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거주지 등 개인적인 인구 사회학적 속성과, 노년층의 학력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조광익, 2013; 최순화, 2021). 또한 취향은 개인이 특정한 선호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가 활동을 선택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구독하는 잡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참여하는 신체활동에는 그것들을 관통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임재구, 김덕중, 2015).

취향에 관해서는 Pierre Bourdieu(1979)의 문화자본론과 Peterson(1992)이 제시한 옴니보어(omnivore) 이론이 있다. Bourdieu는 사회적 세계의 구조가 개인의 취향과 경향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탐구했다. 그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교육, 언어, 미술, 음악에 관한 지식과 같은 비물질적 자산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자산이 사회적 계층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장혜지, 장혜미 외, 2023). Bourdieu는 문화자본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승을 통해 물려받았거나 의식적으로 획득한 형태인 언어 자본 등은 체화된 유형, 사전, 그림, 책과 같이 문화적 상품은 객체화된 유형, 학위 또는 자격증 등은 제도화된 유형으로 구분했다. 문화자본은 특정 사회적 계층에 속한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과 관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부정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묘하게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개인을 그들의 출신 계층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서봉언, 이정란, 2014).

반면, Peterson은 사회적 취향은 단일 문화적 계층이나 구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관심사를 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변화와 함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단일한 고급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나타내는 옴니보어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고급 문화뿐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취향의 주요 특징으로 삼는 현상을 의미한다(박주연, 신형덕, 2018). 또한 Peterson은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 사회적 지위의 새로운 형태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즉 옴니보어는 더 넓은 범위의 문화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다양한 사회적 그룹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한다(최순화, 202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향은 개인이 특정 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취향은 그들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 유형, 참여 빈도, 그리고 여가 활동에서 얻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가와 취향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노년층의 여가 활동 선택과 참여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Bourdieu의 문화 자본론과 Peterson의 옴니보어 이론은 취향이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이 그들이 귀환 후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귀환 전 거주국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서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취향 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선택을 넘어 그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취향이 한국과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적 요소를 융합하여 형성될 가능성은, 이들에 관한 여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할 때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Ⅲ. 연구 방법

#### 1. 델파이 방법

델파이 방법은 두 명이 한 판단이 한 명이 한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가정에서 시작해, 한 명의 전문가보다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델파이의 원문인 'Delphi'는 고대 희랍신화 중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했다는 아폴론신전 소재지인 희랍의 옛 명칭을 따른 것이다(서대진, 장형유 외, 2016).

RAND Corporation가 1950년대에 개발한 델파이 방법은 체계적인 대화형 예측 방법으로 도서관, 정보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Sablitzky, 2022). 다시 말해,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직관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서 발전한 것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끌어내고 종합해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김민규, 2014).

델파이 방법은 통합적인 연구 방법 중, 탐색적 설계 방법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 현상에 관한 분류 기준을 개발하거나 척도를 개발할 때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때 활용한다(김민규, 2018).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에 걸친 피드백을 통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다 객관화 및 체계화할 수 있는 기법이다(서대진 외, 2016).

연구 순서는 준비, 설문조사, 분석 및 구현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준비는 설문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며 설문조사는 전문가가 익명으로 평가를 제공하는 여러 차시의 설문조사로 구성된다. 각 차시에서 전문가는 이전 차시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분석 및 구현 단계는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델파이 방법은 자원 집약적이며, 연구 범위에 따라서는 신중한 계획과 자원 할당이 필요하다(Crisp, Pelletier, et al, 1997).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를 통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이 중요하다. 전문가집단 구성은 연구 중인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구성원 선정을 전제로 한다. 이때 전문가의 대표성, 적절성, 참여 성실성, 전문 지식 능력, 참가자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서대진 외, 2016; Pareja, 2003).

## 2. 델파이 전문가

본 연구는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 전문가의 전문성, 전문가의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을 통한 전문가 선정은 연구 주제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수년 동안 교수한 사람 또는 학위 논문 또는 학회지 논문을 통해 연구 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 위주로 선발한다. 델파이 조사 전문가 수는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김민규, 2018).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춘 전문가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구성을 고려하여 ‘노인’, ‘여가’, ‘재외동포’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전문가집단은 ‘노인 분야 전문가’, ‘여가 분야 전문가’,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로 전문가의 적절성과 전문 지식 능력을 고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교수 1인과 박사 2인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평적 사례 선택 방법(Reputational-case selection strategy)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세평적 사례 선택은 특정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 주제와 맞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Miller & Carperter, 2009). 이후 스노우볼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일반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 표 1 > 전문가 일반정보

전문가 집단	세부전공	직위	관심 연구 분야	연구 기간 참여 회차	
1 노인 전문가	인문융합치료	연구교수	노인, 상담학	8년	1, 2, 3
	사회복지	초빙교수	노인, 다문화·상호문화 역량	14년	1, 2, 3
	노인 체육	초빙교수	노인, 중장년(신중년) 여가	28년	1, 2, 3
2 여가 전문가	여가학	교수	여가 교육, 여가정책, 노인	29년	1, 2, 3
	스포츠 여가사회학	교수	고독사, 노인 여가	28년	1, 2, 3
	여가학	교수	여가정책, 스포츠과학 융합정책	10년	1, 2, 3
3 재외 동포 전문가	여가 교육학	연구소장	스포츠여가, 여가 교육학	9년	1, 2, 3
	재외동포	연구소장	재외동포	13년	1, 2, 3
	다문화교육학	연구교수	재외동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교육	10년	1, 2, 3
4	다문화교육학	전임연구원	다문화 교육,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9년	1, 2, 3

### 3. 델파이 설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1차 델파이 설문지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가 취향의 개념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형 문항으로 개발했다. 주요 문항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 결정되는 요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제약’,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등이다. 전문가의 이해와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돕기 위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의 조작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2, 3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 설문을 통해 나타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보적 요인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폐쇄형 문항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개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폐쇄형 문항으로 개발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했다. 2, 3차 델파이 설문에서도 전문가집단이 문항에 관한 수정·삭제·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기술란을 제공하였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 1)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의미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 노인의 사회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사카모토 세쓰오(2020)는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현재 일본 노인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일본 노인들은 일, 회사, 남편, 자녀, 가족을 위해 살아오던 짐을 내려놓고 나답게 사는 삶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개성의 소실’에서 ‘개성의 복권(復權)’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40~69세의 예비 노인, 전기 노인 세대의 많은 수가 몇 살이 되어도 젊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며, 몇 살이 되어도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sup>3)</sup>

다음은 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2022)에 나타난 60대 이상 인구가 1년 동안 주로 참여한 여가 활동에 관한 조사이다. 주요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 산책, 잡담, 쇼핑,

3)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조사, 2015년, 40~69세 남녀, 전국 2700명 대상.



친구 만남, 모바일 콘텐츠 시청, 인터넷 검색, 음주로 나타났다. 모바일 콘텐츠 시청, 인터넷 검색과 같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가 활동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비율 차이를 보였다.

송문선(2022)은 노인의 여가는 청·장년과 다른 의미가 있으며, 일상이 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노인의 여가는 사회적 의무가 함께하는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역할보다,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실로 생겨난 우울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존중을 유지하고 나아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여가 활동이 이들의 정신건강과 자기 정체성 유지에 도움을 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는 주로 비활동적인 것으로 다채롭지 않았다.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인들의 트렌드가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개성에 맞춘 여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2) 여가 취향에 관한 선행연구

다음은 여가 취향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문화적 취향의 의미와 여가 스포츠 취향, 그리고 노인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Bourdieu(1979)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아비투스(Habitus)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Bourdieu는 취향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정통적 취향은 「피아노 평균율」, 「왼손을 위한 협주곡」과 고야의 작품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통적인 작품 취향을 말한다. 둘째, 중간층 취향은 주요 예술의 하위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헝가리 광시곡」과 르누아르의 회화, 자끄 브렐의 상송과 같은 하위 예술의 주요 작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취향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과 같이 통속화되어 낮은 평가를 받는 고전음악이나 경음악, 루이스 마리아노의 상송과 같이 욕망과 야심이 없는 작품 취향을 말한다.

서문식과 이선희 외(2020)는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청중의 문화적 취향에 관하여 연구했다. 이들의 문화적 취향은 총 8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감수성 취향, 기호성 취향, 융·복합성 취향, 향수성 취향, 쾌락성 취향, 본질성 취향, 대중성 취향, 교육성 취향이 문화적 취향을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임재구와 김선희(2006)는 노인 여가에 관한 연구로 Bourdieu의 이론을 활용했다.



Bourdieu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행위자 역할을 하는 구조로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 자본, 경제 자본에 관해 말했다. 문화자본은 지식, 예술수집품, 기술, 학위, 자격증을 말한다. 사회자본은 가족관계, 학력, 인맥, 연줄과 같은 사회연결망 안에서의 위치를 말한다. 상징 자본은 명예, 존망, 명성, 위신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경제 자본은 부동산, 화폐와 같은 재화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스포츠활동을 선택하는지는 그들이 가진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신체 자본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즉, 노인이 가진 다양한 자본이 함께 작용하여 이들의 여가 활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임재구와 김덕중(2015)은 여가 스포츠 취향에 관한 연구로 취향 성향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분류에 따르면 여가 스포츠 취향은 고급형 여가 스포츠 취향, 경제적 부담이 적고 대중계급이 선호하는 대중적 여가 스포츠 취향, 여가 스포츠에 깊게 참여하는 여가 스포츠매니아 취향으로 나뉘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 취향은 문화, 스포츠 등의 범주에 따라 각각의 세부적인 범주가 존재하며, 취향을 구성하는 사회, 문화, 경제, 상징, 신체적 자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재외동포에 관한 선행연구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의 생활 실태, 문화 적응, 재외동포 정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제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박신규와 이채문(2021)은 고려인 생활 실태에 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경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월 평균 임금을 조사했다. 그 결과 44.8%가 100~199만 원을, 37%가 200~299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700만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고려인은 8.4%였으며, 99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고려인은 5.2%였다.

남혜경과 이미정(2016)은 고려인의 문화 적응에 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고려인의 문화 적응 요인은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개인 차원에는 한국어 능력, 가치관 차이, 정체성 갈등이 있었으며, 사회 차원에는 음식 적응, 조직 문화 적응, 사회활동 참여가 있었다.

박찬용(2018)은 사할린 한인의 정책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할린 한인

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며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러시아화 되었지만, 제사를 지내거나 부모를 봉양하고, 민족끼리 결혼하며 한식을 먹는 등 한국문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현주와 조성식(2017)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 스포츠 제약에 관해 연구했다. 여가제약에는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이 있으며, 이들의 여가 스포츠 참여 제약이 높을수록 행복감, 즐거움, 자신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여가 스포츠 참여 제약은 과다 업무, 여가 시설과의 거리, 불편한 교통, 열악한 경제 여건과 같은 개인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문화에 관한 이질감과 같은 대인적 제약도 존재했다. 이들의 가장 주요한 여가 스포츠 제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부 재외동포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도 한국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 귀환했을 때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언어, 음식, 경제력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이들의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델파이 설문지는 차시별로 이메일과 SNS를 통해 전문가에게 배포 및 수거되었다. 1차 델파이 전문가는 10명으로 자료를 배포하였고, 수거율은 100%였다. 이후 2차 델파이 전문가는 10명으로 자료 배포 후 수거율은 100%였다. 3차 델파이 전문가도 10명으로 자료 배포 후 수거율은 100%였다.

1차 설문은 개방형 문항으로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응답은 문항별로 응답을 정리하였다. 결정요인 분석 문항에 관련된 응답에서 도출한 문장의 중심 개념어를 찾아 나열하였고,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1차 설문에서 2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인 개념어와 협의체를 통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어를 2차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념화 문항에 관련된 응답에서 도출한 문장은 목적어와 술어를 구분하여 나열하였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집단에서 도출한 문장을 포괄할 수 있는 목적어와 술어를 도출하였고, 이를 주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2차 설문과 3차 설문은 폐쇄형 문항으로 델파이 방법의 종결 수준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다. 다섯 가지 종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an은 개별 문항에 관한 집중 경향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한 척도 점수 평균이 4.0 이상일 때 조사를 종결한다(김민규, 박찬민 외, 2022).

둘째,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은 Lawshe(1975)가 제시했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바탕에 두어 분석한다. CVR은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수에 맞추어 최솟값을 제시하며 최솟값 이상일 때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인정한다. 각 응답자 수에 따라 CVR의 최솟값은 다음 <표 2>와 같다(Lawshe, 1975). 본 연구는 10명의 전문가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수식 계산에 의한 CVR값 .620 이상에서 조사를 종결한다.

<표 2> CVR의 최솟값

응답자 수	CVR 최솟값
5	.990
6	.990
7	.990
8	.750
9	.780
10	.620
11	.590
12	.560
13	.540
14	.510
15	.490

주:  $p=.05$

셋째,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각 설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을 산출한다. CVI는 전문가가 3~5명일 때 1.00, 6~10명일 때 .780 이상일 때 종결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이은현,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식 계산에 의한 CVI값 .780 이상에서 조사를 종결한다.

넷째, 안정도(Stability) 검증은 설문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응답 차이가 작게 나타나 응답 일치성이 높으면 안정도가 확보되었다고 간주하며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한다. CV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CV가

.500 이하일 때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간주하여 종결한다(강용주, 2008).

다섯째, 사분위수범위(IQR)는 데이터의 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누적 백분율을 사 등분 한 지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IQR은 Q3-Q1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Q1은 데이터의 25% 지점을, Q3은 데이터의 75% 지점을 의미한다. IQR은 1.000 이하일 때 균형이 맞추어졌다고 간주하여 종결한다(홍경찬, 장명수 외, 20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종결 수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델파이 종결 수준

항목	값
Mean	4.000 이상
CVR	.620 이상
CVI	.780 이상
CV	.500 이하
IQR	1.000 이하

델파이 방법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전 회차에서 나타난 통제된 피드백을 통해 다음 회차에서 판단을 수정,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민규, 2020). 델파이 결과 측정된 통계치가 종결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하에 설계되었고 인하대학교 기관 생명 윤리위원회의 규정과 승인에 따라(IRB 승인 번호: 230529-4A)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 중 참여 철회에 관한 권리 또한 명확하게 소개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한 보안에 따라 암호화하여 관리하였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유지, 이후 전체 폐기될 예정이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연구 결과는 오직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전문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연구책임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었으며, 전문가의 궁금증이나 우려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치하였다. 연구에 대한 성실한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였으며, 모든 절차와 조치를 통해 본 연구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음을 밝힌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조사 과정과 결과 제시이며, 두 번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화 과정과 결과 제시이다.

### 1.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 1) 1차 델파이 결과

1차 설문은 개방형 설문지로 진행했다. 노인, 여가, 재외동포 전문가집단에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과 제약 요인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지는 2023년 7월 13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7월 22일까지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1차 설문 결과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보적 요인’의 네 개의 상위 범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 응답 내용을 개념어, 하위 범주, 상위 범주에 따라 범주화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차 델파이 설문 범주화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2	건강	개인적 요인	
정신적 건강	1			
노후 준비도	6	여가 자원		
한국어 숙련도	4			
여가 활동 시간	1			
향수(鄉愁)	3	심리		
자신감 부족	2			
강박적 성향	1			
히스테리적 성향	1			
물리적 접근성	5	생활 여가 인프라		사회적 요인
프로그램 전문성	1			
현재 동반자	3	주요 타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3			
인적 네트워크	2			
이성 노인과의 관계	1			
기존 문화 환경	2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2			
정치·사회 체제	1			
문화 이해·적응도	3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2			
여가문화 인지	2			
문화 차이	2			
노인 여가문화 정책	1			
프로그램 정보	6	지식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	2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2	시기에 따른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1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1			

## 2) 2차 델파이 결과

1차 설문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념어와 범주화의 타당성 평정을 위해 2차 델파이 설문을 진행했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첫째, 1차 설문에서 2회 이상 빈도수를 나타



낸 개념어와 둘째,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교수 1인과 박사 2인 등 협의체 통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어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설문지는 폐쇄형으로 각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했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2023년 8월 14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8월 23일에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2차 설문지 분석 과정 중 3점 이하로 표시하였으나 수정 및 삭제 지시 사항이 없는 설문지가 있어,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2023년 8월 30일에 2차 설문지를 수정 없이 재전송하고 수정 및 삭제 지시 사항을 기재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지 회수는 2023년 9월 4일에 완료했다.

### (1) 개인적 요인

문항 1(<표 5>)은 개인적 요인 중 신체적 건강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평균)은 4.700, SD(표준편차)는 .48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중위수)은 5.000, Mode(최빈값)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내용타당도 비율)은 1.000, CVI(내용타당도 지수)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변이계수)는 .103, IQR(사분위수범위)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신체적 건강 타당도

문항 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700	.483	5.000	5.000	1.000	1.000	.103	1.000

문항 2(<표 6>)는 개인적 요인 중 정신적 건강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800, SD는 .42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088, IQ



R은 .2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신적 건강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정신적 건강 타당도

문항 2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정신적 건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800	.422	5.000	5.000	1.000	1.000	.088	.250

문항 3(<표 7>)은 문항 1, 2를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96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20,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건강으로의 범주화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하위 범주: 건강 타당도

문항 3. 개념어 범주화: 건강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건강'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400	.966	5.000	5.000	.800	.900	.220	1.000

문항 4(<표 8>)는 개인적 요인 중 노후 준비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500, SD는 .70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노후 준비도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서는 노후 준비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노후 준

비도 척도에서 노후 준비에 관한 범주는 가족관계, 여가 활동, 경제력, 대인관계, 심리 건강, 신체 건강, 정서 건강이 있다(홍서연, 김미량, 2020). 본 문항은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나 ‘노후 준비도’는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경제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력’으로 수정하였다.

<표 8> 노후 준비도 타당도

문항 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노후 준비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500	.707	5.000	5.000	.800	.900	.157	1.000

문항 5(<표 9>)는 개인적 요인 중 한국어 숙련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700, SD는 .48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0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어 숙련도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은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나 ‘한국어 숙련도’는 ‘숙련’의 정도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 ‘한국어 능력 정도’로 수정하였다.

<표 9> 한국어 숙련도 타당도

문항 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어 숙련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700	.483	5.000	5.000	1.000	1.000	.103	1.000

문항 6(<표 10>)은 개인적 요인 중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69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9,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여가 활동 시간 타당도

문항 6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699	4.500	5.000	.800	.900	.159	1.000

문항 7(〈표 11〉)은 문항 3, 4, 5, 6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600, SD는 1.174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326, IQR은 1.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노후 준비도와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하위 범주: 여가 자원 타당도

문항 7. 개념어 범주화: 여가 자원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600	1.174	4.000	4.000	.200	.600	.326	1.250

여가 자원은 본 문항에서 도출된 개념어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범주로 명확한 범주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 〈표 12〉과 같다. 이에 따라 하위 범주를 ‘여가 자원’에서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 수정

하였고,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작성한 괄호 안 ‘(를 위한)’의 삭제 여부를 설문으로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다.

〈표 12〉 문항 7 수정 지시 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범주 용어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학에서 여가 자원의 하위변인은 여가시간, 여가 시설, 여가 프로그램, 여가 비용, 여가지도자, 여가 정보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범주화에는 무리가 있다.</li> <li>경제력, 동반자 등도 여가 자원에 속하므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회적 요인에 주요 타자가 포함되어 있기에 분류를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li> </ul>

문항 8(〈표 13〉)은 개인적 요인 중 향수(鄉愁)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전 거주국에 대한 향수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거주국에 대한 향수 타당도

문항 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 대한 향수(鄉愁)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문항 9(〈표 14〉)는 개인적 요인 중 자신감 부족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500, SD는 1.17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400, CVI는 .700로 나타났으며 CV는 .337, IQR은 1.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자신감 부족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자신감 부족 타당도

문항 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서툰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500	1.179	4.000	4.000	.400	.700	.337	1.250

본 문항은 여가 활동에 서툰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자신감 부족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삭제 의견이 있었다.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15〉와 같다. 본 문항에 관한 협의 결과 문항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표 15〉 문항 9 수정 지시 사항

수정 지시 사항	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활동 서툰보다 낮은 환경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li> </ul>

문항 10(〈표 16〉)은 개인적 요인 중 강박적 성향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 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000, SD는 .994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42, IQR은 1.250으로 나타나 CVR, IQR에서 통계적으로 강박적 성향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는 강박 성향과 관련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강박 성향은 강박사고와 동반하는 불안,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이수인, 강영신, 2019).

<표 16> 강박적 성향 타당도

문항 1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강박적 성향을 보이는 귀환 제외동포 노인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익숙해진 여가 활동을 취향으로 인식한다.	4.000	.994	4.000	4.000	.600	.800	.242	1.250

본 문항과 관련해 강박 성향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견, 강박 성향과 여가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인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문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17>과 같다. 전문가 의견과 같이 강박장애는 일반 인구에서 2~3%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의학계에서는 흔한 질환이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상원, 최미나 외, 2022). 더하여 강박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 문항은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표 17> 문항 10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선행연구 제시 또는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박 성향은 일부에게만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문항이라 할 수 없다.</li> <li>강박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제시가 필요하다.</li> </ul>

문항 11(<표 18>)은 개인적 요인 중 히스테리 성향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400, SD는 1.350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397, IQR은 2.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히스테리 성향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히스테리에 관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히스테리는 과거의 억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욕망을 통해 대타자를 향한 '욕망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속함

으로 인하여 자신을 찾아 나가는 증상이다(이수진, 2018).

〈표 18〉 히스테리 성향 타당도

문항 1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히스테리 성향을 보이는 귀환 제외 동포 노인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익숙해진 여가 활동을 취향으로 인식한다.	3.400	1.350	4.000	4.000	.200	.600	.397	2.250

본 문항은 문항 10의 강박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히스테리 성향과 여가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인 선행연구로 제시되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문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19〉와 같다. 히스테리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 문항은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표 19〉 문항 11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선행연구 제시 또는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히스테리 성향은 일부에게만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문항이라 할 수 없다.</li> <li>히스테리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제시가 필요하다.</li> </ul>

문항 12(〈표 20〉)는 문항 8, 9, 10, 11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700, SD는 1.160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313, IQR은 2.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향수,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 적 성향의 심리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 하위 범주: 심리 타당도

문항 12. 개념어 범주화: 심리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향수(鄉愁)’,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의 ‘심리’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700	1.160	4.000	4.000	.200	.600	.313	2.250

본 문항에는 ‘심리’보다 ‘심리적 건강’으로 범주화함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21>과 같다. ‘심리’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어 4개 중 3개인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에 삭제 의견이 있음을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 본 하위 범주 전체를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표 21> 문항 12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범주 용어 수정	• 심리적 건강으로의 범주화가 타당하다.

문항 13(<표 22>)은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568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38, IQR은 .2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건강, 여가 자원, 심리의 개인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델파이 설문 결과를 통해 하위 범주인 ‘여가 자원’은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 변경하고, ‘심리’는 개념어의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아 삭제를 결정함에 따라 상위 범주: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는 ‘건강’과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 분류하였다.

〈표 22〉 상위 범주: 개인적 요인 타당도

문항 13. 하위 범주 범주화: 개인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건강’, ‘여가 자원’, ‘심리’의 ‘개인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100	.568	4.000	4.000	.800	.900	.138	.250

(2) 사회적 요인

문항 14(〈표 23〉)는 사회적 요인 중 물리적 접근성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700, SD는 .48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로 나타났으며 CV는 .10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물리적 접근성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 물리적 접근성 타당도

문항 1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 근방 여가 시설 유무, 시설까지의 거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700	.483	5.000	5.000	1.000	1.000	.103	1.000

문항 15(〈표 24〉)는 사회적 요인 중 프로그램 전문성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63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 프로그램 전문성 타당도

문항 1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역에서 시행하는 여가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632	4.000	4.000	.800	.900	.151	1.000

문항 16(〈표 25〉)은 문항 14, 15를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568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38, IQR은 .2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의 전문성의 생활 여가 인프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5〉 하위 범주: 생활 여가 인프라

문항 16. 개념어 범주화: 생활 여가 인프라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의 ‘생활 여가 인프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100	.568	4.000	4.000	.800	.900	.138	.250

문항 17(〈표 26〉)은 사회적 요인 중 현재 동반자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현재 동반자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6> 현재 동반자 타당도

문항 17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현재 동반자와 그의 여가 취향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문항 18(<표 27>)은 사회적 요인 중 생애 주기별 동반자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000, SD는 1.15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변이계수 값은 .289,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생애 주기별 동반자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7> 생애 주기별 동반자 타당도

문항 1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생애 주기별 동반자는 그들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000	1.155	4.000	4.000	.800	.900	.289	1.000

문항 19(<표 28>)는 사회적 요인 중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800, SD는 .78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09, IQR은 1.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8〉 귀환 전 인적 네트워크 타당도

문항 1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800	.789	4.000	4.000	.200	.600	.209	1.250

본 문항에는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과거에 형성된 네트워크로 SNS를 통해 유지되는 온라인 네트워크이기에, 현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29〉와 같다. 본 문항은 전문가의 수정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는’을 ‘귀환 전 거주국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는’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사할린동포가 사할린에 남아 있는 자녀들과 SNS를 통하여 관계를 이어간다는 참고문헌(임채완, 이소영, 2015)을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다.

〈표 29〉 문항 19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li> <li>•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li> </ul>

문항 20(〈표 30〉)은 사회적 요인 중 귀환 후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형성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0〉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타당도

문항 2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새롭게 형성한 한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문항 21(〈표 31〉)은 사회적 요인 중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800, SD는 1.03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3.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로 나타났으며 CV는 .272, IQR은 2.00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는 남성 노인이 참여한 운동 교실에서 여성 노인과의 관계에 관한 참고 문헌을 제시하였다. 남성 노인들은 여성 노인이 반겨주지 않으면 운동 교실 참여가 어려우며, 여가 복지 시설에서 텃세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한다(이승연, 박휴경 외, 2022).

〈표 31〉 이성 노인과의 관계 타당도

문항 2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800	1.033	4.000	3.000	.200	.600	.272	2.000

본 문항에는 여성 노인은 동성 노인의 영향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32〉와 같다. 이에 관한 협의체와의 협의에서 여가는 다양한 활동을 동반하며 활동에 따라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성 교제를 원하며, 이는 삶의 활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참고문헌을 추가하여(김현덕, 2012) 동일한 문항으로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표 32〉 문항 21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 여성 노인은 동성 노인의 영향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다.

문항 22(〈표 33〉)는 문항 17, 18, 19, 20, 21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500, SD는 .52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주요 타자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 하위 범주: 주요 타자

문항 22. 개념어 범주화: 주요 타자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주요 타자’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500	.527	4.500	4.000	1.000	1.000	.117	1.000

문항 23(〈표 34〉)은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67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생활 여가 인프라와 주요 타자의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 상위 범주: 사회적 요인 타당도

문항 23. 하위 범주 범주화: 사회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생활 여가 인프라’, ‘주요 타자’의 ‘사회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 (3) 문화적 요인

문항 24(〈표 35〉)는 문화적 요인 중 기존 문화 환경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기존 문화 환경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기존 문화 환경 타당도

문항 2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적 배경 및 환경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문항 25(〈표 36〉)는 문화적 요인 중 전통적 여가 활동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67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는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전통적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서는 귀환한 사할린동포의 전통적 문화 전승에 관한 연구와(안상경, 이

병조, 2013)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전승하고 있는 자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가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었다(정연학, 2015).

〈표 36〉 전통적 여가 활동 타당도

문항 2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사할린 한인촌, 중국동포는 마작과 같이 국가에 따라 그들의 전통적 여가 활동이 있고, 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문항 26(〈표 37〉)은 사회적 요인 중 정치·사회 체제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500, SD는 .850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3.5000, Mode는 3.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000, CVI는 .5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4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에서 통계적으로 정치·사회 체제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7〉 정치·사회 체제 타당도

문항 26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정치·사회 체제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500	.850	3.500	3.000	.000	.500	.243	1.000

본 문항에는 정치·사회 체제에 관한 명확한 의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사회 체제가 여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38〉과 같다. 이에 따라 사회 체제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 나뉘며 한국의 경우 극우 반공 체제, 개발 독재 체제, 발전국가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변화하였다는 참고문헌(조희연, 2010)과 한국에서 사는 외국 국적 동포의 84%가 중국,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 출신으로(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3.7) 한국과 다른 사회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사회 체제를 사회체제(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등)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표 38〉 문항 26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체제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li> <li>• 여가 활동은 자유로운 영역이기에 정치·사회 체제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li> </ul>

문항 27(〈표 39〉)은 문항 24, 25, 26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000, SD는 .66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67, IQR은 .500으로 나타나 CVR에서 통계적으로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 체제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9〉 하위 범주: 귀환 전 거주국 문화 타당도

문항 27.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 문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체제’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000	.667	4.000	4.000	.600	.800	.167	.500

문항 28(〈표 40〉)은 문화적 요인 중 문화 이해·적응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문화 이해·적응도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는 문화 적응에 관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문화 적응은 사회문화 적

응, 심리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문화 적응은 다른 문화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의미한다. 심리 적응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의미한다(박한울, 김선아, 2020).

〈표 40〉 문화 이해·적응도 타당도

문항 2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문화 이해·적응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문항 29(〈표 41〉)는 문화적 요인 중 새로운 문화 환경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새로운 문화 환경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 새로운 문화 환경 타당도

문항 2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새로운 여가문화 환경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문항 30(〈표 42〉)은 문화적 요인 중 여가문화 인지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78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88, IQR은 1.250으로 나타나 CVR, IQR에서 통계적으로 여가문화인지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여가문화 인지 타당도

문항 3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여가문화 인지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789	4.000	4.000	.600	.800	.188	1.250

본 문항에는 여가문화 인지 정도가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 〈표 43〉과 같다. 본 문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고 3차 델파이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표 43〉 문항 30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문화 인지는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li> <li>여가문화 인지와 관계없이 귀환 전 여가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li> </ul>

문항 31(〈표 44〉)은 문화적 요인 중 문화 차이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문화 차이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 문화 차이 타당도

문항 3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문항 32(<표 45>)는 문화적 요인 중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900, SD는 .87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3.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25, IQR은 2.00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노인 여가문화 정책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5> 노인 여가문화 정책 타당도

문항 32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900	.876	4.000	3.000	.200	.600	.225	2.000

본 문항에는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 <표 46>과 같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여가와 관련한 정책은’으로 수정하여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표 46> 문항 32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삭제	•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

문항 33(<표 47>)은 문항 28, 29, 30, 31, 32를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67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여가문화 인지,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47> 하위 범주: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타당도

문항 33. 개념어 범주화: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여가문화 인지’,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문항 34(<표 48>)는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와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의 문화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8> 상위 범주: 문화적 요인 타당도

문항 34. 하위 범주 범주화: 문화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의 ‘문화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 (4) 정보적 요인

문항 35(<표 49>)는 정보적 요인 중 프로그램 정보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63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9〉 프로그램 정보 타당도

문항 3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632	4.000	4.000	.800	.900	.151	1.000

문항 36(〈표 50〉)은 정보적 요인 중 진지한 여가 활동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63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진지한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서는 진지한 여가 개념에 관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진지한 여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구하여 그 안에서 재미와 본질, 그리고 성취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아마추어, 취미, 자원봉사의 세 가지 활동 유형으로 구성된다(Stebbins, 2006). 따라서 본 문항에서 설문으로 제시한 여가 지식과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개념어를 정리하였다.

〈표 50〉 진지한 여가 활동 타당도

문항 36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한국의 여가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632	4.000	4.000	.800	.900	.151	1.000

문항 37(<표 51>)은 문항 35, 36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900, SD는 .87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25, IQR은 .500으로 나타나 Mean, CVR에서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은 타당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전문가의 수정·삭제 지시사항이 없어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노인의 진지한 여가와(김유나, 김성경, 2022; 신다현, 이상희 외, 2020; 이현진, 이상희 외, 2022)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의 진지한 여가 경험에 관한 참고문헌을(박봉수, 이미정, 2016) 제시하였다. 본 문항의 범주화는 ‘지식’, ‘인지’, ‘여가 역량 개발’의 세 가지로 제시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표 51> 하위 범주: 지식 타당도

문항 37. 개념어 범주화: 지식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900	.876	4.000	4.000	.600	.800	.225	.500

문항 38(<표 52>)은 정보적 요인 중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2>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타당도

문항 3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은 귀환 후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문항 39(<표 53>)는 정보적 요인 중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경험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1.19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9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3>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경험 타당도

문항 3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경험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100	1.197	4.000	4.000	.800	.900	.292	1.000

문항 40(<표 54>)은 정보적 요인 중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경험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4〉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경험 타당도

문항 4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참여 경험과 빈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문항 41(〈표 55〉)은 문항 38, 39, 40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568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는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38, IQR은 .2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활동,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그리고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경험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 하위 범주: 시기에 따른 경험 타당도

문항 41. 개념어 범주화: 시기에 따른 경험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활동’,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경험’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100	.568	4.000	4.000	.800	.900	.138	.250

문항 42(〈표 56〉)는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67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의 정보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6〉 상위 범주: 정보적 요인 타당도

문항 42. 하위 범주 범주화: 정보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의 ‘정보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 (5) 소결

2차 델파이 결과 각 문항의 타당도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결정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건강 항목에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여가 자원은 범주화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여가(를 위한)배경으로 범주를 수정하고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여가 자원 항목에서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간은 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 준비도는 경제력, 한국어 숙련도는 한국어 능력 정도로 수정하였다.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심리는 항목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전문가의 삭제 의견이 있어 협의를 거쳐 하위 범주를 모두 삭제하였다.

사회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생활 여가 인프라 항목에서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사회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주요 타자 항목에서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는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문항을 수정하고 참고문헌을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화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항목을 수정하고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항목에서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은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정치·사회 체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개념어를 사회 체제로 수정하고 참고문헌을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화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항목인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의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여가문화 인지,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타당성이 입



증되지 않았다. 여가문화 인지는 전문가의 삭제 의견이 있어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노인 여가문화 정책은 문항을 수정하여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정보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지식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지식, 인지, 여가 역량 개발의 세 가지로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지식 항목 중 프로그램 정보와 진지한 여가 활동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정보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시기에 따른 경험 항목 중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전문가 의견과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항 삭제, 수정, 참고문헌 추가 과정을 걸쳐 3차 델파이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2차 결과를 통해 도출된 델파이 설문 결과는 다음 <표 57>와 같다.

<표 57> 2차 델파이 설문 결과

개념어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건강	개인적 요인	
정신적 건강			
경제력	여가(를 위한) 배경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			
물리적 접근성	생활 여가 인프라		
프로그램 전문성			
현재 동반자	주요 타자		사회적 요인
생애 주기별 동반자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과의 관계			
기존 문화 환경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사회 체제			
문화 이해·적응도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			
프로그램 정보	지식/ 인지/ 여가 역량 개발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시기에 따른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 3) 3차 델파이 결과

3차 설문은 2차 설문 결과에서 종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설문 중 수정 지시사항을 반영한 7개의 설문을 도구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차 설문과 같이 폐쇄형으로 각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했다. 3차 델파이 설문지는 2023년 9월 20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9월 27일에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1) 개인적 요인

문항 1(<표 58>)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여가 자원’을 수정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노후 준비도’,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8> 하위 범주 범주화: 여가 배경

문항 1. 범주화: 여가(를 위한) 배경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노후 준비도’,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본 문항 중 문항의 명확성을 위해 추가한 괄호 내용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괄호 내용을 삭제하고 ‘여가 배경’으로 범주화하였다. 타당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괄호 내용 삭제 여부

문항 2.	삭제가 타당하다.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범주화 중 괄호 안의 (를 위한) 삭제 여부	8	2

(2) 사회적 요인

문항 3(<표 60>)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국어로 귀환 전 인적 네트워크를 수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500, SD는 .707로 나타났다. 집중 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으로 귀환 전 인적 네트워크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0〉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문항 3.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전 거주국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귀환 재외 동포 노인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500	.707	5.000	5.000	.800	.900	.157	1.000

문항 4(〈표 61〉)는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성 노인과의 관계를 수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1.03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46, IQR은 1.250으로 나타나 CVR, IQR에서 통계적으로 이성 노인 관계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1〉 이성 노인과의 관계 타당도

문항 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1.033	4.500	5.000	.600	.800	.246	1.250

본 문항에는 이성 노인과의 관계보다 폭넓은 범위인 주변 친구와의 관계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남성 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

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62>와 같다. 본 문항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 전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삭제하기로 하였다.

<표 62> 문항 4 수정 지시사항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또는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친구와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로 수정함을 추천한다. 이성과의 관계가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성을 포함한 주변 친구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li> <li>• 남성 노인에 더 해당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국내 여성 노인도 이성 노인보다 동성 노인인 친구 영향이 더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li> </ul>

### (3) 문화적 요인

문항 5(<표 63>)는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회 체제를 수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1.22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9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사회 체제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은 타당도가 확인되었지만, 사회 체제는 본 연구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선행연구도 미흡하여 사회 체제와 여가에 관한 선행 연구가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삭제를 결정하였다.

<표 63> 사회 체제 타당도

문항 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사회 체제는(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등)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1.229	4.500	5.000	.800	.900	.293	1.000

문항 6(〈표 64〉)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귀환 전 거주국의 여가문화를 수정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사회 체제’, ‘귀국 전 여가 활동’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문항 5에서 ‘사회 체제’를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결론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나 ‘귀국 전 여가 활동’이 ‘정보적 요인’에서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를 통해 두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귀국 전 여가 활동을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에서 삭제하였다.

〈표 64〉 하위 범주: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항 6.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사회 체제’, ‘귀국 전 여가 활동’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문항 7(〈표 65〉)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노인 여가문화 정책을 수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1.25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9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노인 여가문화 정책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5> 노인 여가문화 정책 타당도

문항 7.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공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여가와 관련한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300	1.252	5.000	5.000	.800	.900	.291	1.000

#### (4) 정보적 요인

문항 8(<표 66>)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지식을 수정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3차 델파이 설문에서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범주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지식’으로 범주화에서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94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2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지식’으로의 범주화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로 범주화에서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3.500, SD는 1.26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2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363, IQR은 1.5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인지’로의 범주화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 역량 개발’로 범주화에서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3.600, SD는 1.07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공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99, IQR은 1.5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여가 역량 개발’로의 범주화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은 ‘지식’으로 범주화를 결정하였다.

<표 66> 개념어 범주화

문항 8. 개념어 범주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300	.949	4.500	5.000	.800	.900	.221	1.000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인지’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500	1.269	4.000	4.000	.200	.600	.363	1.500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여가 역량 개발’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600	1.075	4.000	4.000	.200	.600	.299	1.500

### (5) 소결

3차 델파이 결과 각 문항의 타당도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여가(를 위한)배경은 하위 범주로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추가한 (를 위한)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최종적으로 여가 배경으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주요 타자 항목의 인적 네트워크는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문항이 귀환 전, 후가 나뉘어 있기에 개념어를 나눠서 구성하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와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성 노인과의 관계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삭제를 결정하였다.

문화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항목의 사회 체제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삭제를 결정하였다. 하위 범주인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는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항목의 노인 여가문화 정책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정보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지식, 인지, 여가 역량 개발 중 지식이 하위 범주로 타당성을 입증되었고 인지, 여가 역량 개발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지식으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표는 최종 결과 표와 같아 본 장의 3절에 제

시하였다.

## 2.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 1) 1차 델파이 결과

1차 델파이 설문은 개방형 설문으로 노인, 여가, 재외동포 전문가에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지는 2023년 7월 13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7월 22일에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1차 델파이 설문 결과에서 도출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설문의 응답은 다음 <표 67>과 같다.

<표 67>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 개념

주어	목적어	술어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여가 활동 시간에</li> <li>•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li> <li>• 한국에 귀환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화하여</li> <li>•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li> <li>• 잠재적 취미로</li> <li>• 과거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 해봤던 여가 활동을</li> <li>• 여가문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나 참여하는</li> <li>• 거주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선호하는 놀이 활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 찾기</li> <li>•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하는 것이다.</li> <li>• 행동이다.</li> <li>• 활동이다.</li> <li>• 준비하고 있다.</li> </ul>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	→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은 문장으로 구성해야 하기에 주어와 목적어, 술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도출된 문장은 단어 단위로 나누어 협의체와 귀납적 분석을 시행하여 적합한 단어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어를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2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했다.

먼저 주어진 문항에서 제시한 대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목적어는 ‘자신의 여가 활동 시간에’,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한국에 귀환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화하여’,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취미로’, ‘과거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 해봤던 여가 활동을’, ‘여가문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나 참여하는’, ‘거주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선호하는 놀이 활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 찾기’, ‘언제든 드러낼 수 있는’으로 분류되었고, 귀납적 분석을 통해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로 도출했다.

셋째, 술어는 ‘결정하는 것이다.’, ‘행동이다.’, ‘활동이다.’, ‘준비하고 있다.’로 분류되었고, 귀납적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로 도출했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1차 델파이 설문 결과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초안이 도출되었다.

## 2) 2차 델파이 결과

1차 설문 결과분석을 토대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정의의 타당도를 평정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지는 폐쇄형으로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했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2023년 8월 14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8월 23일에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2차 설문지 분석 과정 중 3점 이하로 표시하였으나 수정 및 삭제 지시사항이 없는 설문지가 많아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8월 30일에 2차 설문지를 수정 없이 재전송하고 수정 및 삭제 지시사항을 기재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지 회수는 2023년 9월 4일에 완료했다.

개념화 문항(<표 68>)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

치 중 Mean은 4.200, SD는 .91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19,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정의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8〉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4.200	.919	4.000	4.000	.800	.900	.219	1.000

### 3. 소결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들이 여가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취향 결정요인과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다. 문헌 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첫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둘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은 무엇인지 개념화하였다. 논의에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 결정요인과 개념화 도출 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취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정보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개념어와 하위 범주, 그리고 상위 범주는 다음 〈표 69〉와 같다.

〈표 69〉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화

개념어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건강	개인적 요인	
정신적 건강			
경제력	여가 배경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			
물리적 접근성	생활 여가 인프라		
프로그램 전문성			
현재 동반자	주요 타자		사회적 요인
생애 주기별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기존 문화 환경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문화 이해·적응도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			
프로그램 정보	지식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시기에 따른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경제력과 한국어 능력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배경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를 통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건강과 여가 배경은 개인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차 델파이 설문에서 향수(鄉愁),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이 심리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2차 델파이 설문에서 대부분의 개념어가 ‘주요한 요인이 아님’, ‘보편적인 요인이 아님’의 이유로 삭제되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 근방 여가 시설 유무와 시설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물리적 접근성과 노인의 거주지역에서 시행하는 여가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여가 인프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현재 동반자와 그의 취향, 생애 주기에 따른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롭게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타자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를 통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생활 여가 인프라와 주요 타자는 사회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적 배경 및 환경을 의미하는 기존 문화 환경과 사할린 한인은 춤, 중국동포는 마작과 같이 국가에 따른 전통적 여가 활동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귀환 전 거주국 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문화 이해·적응도와 한국의 새로운 여가문화 환경, 귀환 전 거주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그리고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를 통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 문화와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는 문화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한국의 여가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과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경험, 그리고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참여 경험과 빈도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시기에 따른 여가 경험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를 통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지식과 시기에 따른 경험은 정보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문장을 수집하여 범주화하고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의 개념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로 도출



되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과 취향의 개념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여가 취향 결정요인과 취향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노인 여가와 귀환 재외동포 노인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서술하였다.

#### 1) 여가 취향 결정요인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개인의 다양한 활동 참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자원이자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 자원은 개인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다양한 자산, 시설 및 기회를 의미하며 개인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한다(이현주 외, 2022; Hwang, Choi, et al, 2015). 개인적 자원에 해당하는 건강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신체 건강이 좋은 사람은 제한 없이 여가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신체 건강이 좋지 않으면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Hwang, et al, 2015). 또한 우울증 증세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가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Levick, Broome, et al, 2023; Yan, et al, 2022),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여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은 여가 활동의 접근성, 선택의 폭,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질과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하나의 여가 자원으로서는 기능한다(이성은, 2015). 생산가능인구에 벗어나 있는 노인들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들은 체류 자격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귀환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했다(곽민정 외, 2023). 고비용의 여가 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고, 비용에 따른 여가 선택의 폭은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은 여가 활동의 참여 가능성과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서 나타난 특이점은 한국어 능력이었다. 여가 활동 선호와 참여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은 정보 접근성, 사회적 상호작용 및 문화적 통합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여가제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화성, 이영안 외, 2020). 또한 언어장벽과 문화·민족적 차이로 이민자들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적응 곤란이 고령의 이민자가 여가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준다(Kim, Suh, et al, 2019). 귀환 재외동포 노인과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짐에서 볼 때, 한국어 능력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자원으로 기능하며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은 귀환 후 한국 문화 영역과 지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귀환 재외동포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초 생활 시설 이용 및 한국인과 사회적 교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곽민정 외, 2023). 이와 반대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여가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거나 여가 활동을 탐색할 때, 정보 접근성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문화 적응을 돕는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류루루 외, 2023; 이혜미, 김영주, 2016).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춰볼 때 한국어 능력은 직접적으로 여가 활동 취향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문화나 지식 영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경제력과 언어 능력은 Bourdieu가 주장한 문화자본의 유형이다. 문화자본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총체적인 문화적 산물을 의미한다(신아란, 권혁인, 2023). 경제력은 상품과는 다르지만, 재화의 의미에서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진 경제적 자산에 따라 여가 소비계층이 달라지며, 이는 여가 취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반면 언어 능력은 전승을 통해 물려받은 체화된 유형의 자본으로 볼 수 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온 문화적 배경을 형성한다.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는 경험을 통

해 이들에게 체화되며, 이는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상속 자본(Inherited capital)이자, 그곳에서의 교육을 통해 얻은 문화적 성향 및 의지의 획득 자본(acquired capital)으로 볼 수 있다(이희영, 2023).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경우 국외 이주 전에는 출생지 언어인 한국어가 모국어였으나 오랜 기간 거주한 거주국의 언어가 모국어에 가깝게 변화하기에 한국어는 귀환 후 개인적 투자를 통해 획득한 획득 자본이라 할 수 있다(장혜지 외, 2023).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경제적·언어적 문화자본은 그 자본의 수량과 정도에 따라 다른 취향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충분한 여가시간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고 새로운 여가를 개발할 기회를 준다. 여가시간 부족은 여가 활동 참여율을 낮추고 여가만족도를 낮춘다(주익현, 주이화, 2021).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여가시간은 이들로 하여 기존 거주국에서 여가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환경에서 여가에 참여하게 한다. 충분한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여가 선택의 폭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 중 생활 여가 시설과의 물리적 접근성과 프로그램 전문성은 사회적 여가 자원에 포함되며, 구조적인 여가제약에도 포함된다. 여가제약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여가 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을 말한다. 여가제약은 개인 내 제약(Intra personal barriers), 대인관계 제약(Interpersonal barriers) 및 구조적 제약(Structural barrier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Crawford, et al., 1987). 이 중 구조적 제약은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숙박, 여가 시설, 교통수단, 편의시설 부족과 같은 사회 인프라적 제약을 말한다(송화성, 강영애, 2021). 구조적 제약은 여가활동의 접근성과 질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프라 장벽은 이들이 여가생활을 누리는 데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여가 인프라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 중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는 인적 여가 자원임과 동시에 대인 관계적 여가제약에 해당한다. 노인은 은퇴와 신체기능 약화로 인해 사회적 교류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의 축소를 경험한다(황혜선, 이윤석, 2021).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큰 여가 활동 시 사회적 관계가 좁은 노인에게는 여가 참여 동반자의 유무와 여가 동반자의 구성이 여가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선미, 이윤석, 2022).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이것이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여가활동조사(2022)에 의하면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와 ‘SNS’는 여가 활동 순위 10위권 안에 있는 여가 활동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은 귀환 전 거주국에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등의 여가를 보내기도 했다(박신규, 이채문, 2016). 이를 통해 여가 참여 동반자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성향이 다른 개인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대인관계 제약은 여가 취향이 개인마다 다를 때, 참여 장벽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가 일어날 때, 또한 여가 동반자와의 시간 불일치, 여가 동반자의 부재로 인한 것들이 있다(송화성, 이윤정, 2023; Crawford & Godbey, 1987). 그뿐만 아니라 주요 타자의 여가 지지는 여가 참여자의 여가 참여와 여가계약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경식, 이경선, 2014).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주요 타자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요인, 특히 기존 문화 환경과 전통적 여가 활동은 문화자본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이 기존의 거주국에서 형성한 문화자본은 한국으로 귀환한 후에도 체화된 것으로 남아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의 문화적 배경은 이전과 달라진다. 문화적 요인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중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긴 시간을 보내왔으며, 그때 형성된 문화 배경이 한국에 귀환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한국에 귀환해 문화 적응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조일동, 2015). 문화 적응 과정에서 이들은 거주국에서 익숙해진 여가를 답습하기도 하며, 그와 비슷한 활동으로 여가를 대체하기도 한다(이주연, 2008; 정연학, 2015; 홍세희, 조기숙, 2017). 그러나 이들은 거주국의 고유한 여가문화만을 답습하려 하지는 않는다. 하춘광(2014)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국가에서 이민자들의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민자들은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

서 현지인과 교류하며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한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들도 스포츠나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한국인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한국으로 귀환 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변화한 환경에서 이들은 기존 문화 배경에서 가진 문화자본을 통해 취향을 유지하기도 하며, 정주민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새로운 취향을 생성하기도 한다.

정보적 요인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정보는 사회적 여가 자원에 포함된다. 사회적 여가 자원의 중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더하여 낙후 지역과 사회취약계층의 여가 여건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이유진, 황선환 외, 2020; 한진오, 정득 외, 2019). 취향은 마치 순수한 자기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반이 되는 선택지를 주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없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 취향이 될 수 없다(유승호, 2021). 이를 통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정보적 요인 중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은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에게도 진지한 여가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이 여가와 연결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에 더 넓은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실제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과 유사성을 보이는 집단인 고령 북한이탈주민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진지한 여가를 경험하며 활동적 노화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다(배재윤, 2023).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이 한국에서 진지한 여가 활동을 충분히 이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이 진지한 여가를 탐색하는 과정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취향을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요인에서 시기에 따른 경험은 여가 경험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 배경과 과거의 여가 경험은 그들에게 학습된 상태로 남아 있다. 여가 경험은 체화된 유형의 문화자본으로 이후 여가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Stalker, 2011). 여가 경험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

들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 익숙해진 여가 활동이나 문화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정체성 형성에 기초가 된다. 동시에, 이들은 귀환 후 한국의 여가문화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 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여가 선택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귀환 전 거주국의 여가문화와 시기에 따른 경험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여가 자원은 이들의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인이 여가를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 지리적 위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여가 자원이 개인이 여가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Cameron, 2011; Kosberg & Garcia, 1985). 이러한 자원들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어떠한 형태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제약 요소는 여가 참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제약으로 인해 선택할 수 없는 여가 활동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여가 자원의 역할은 이들의 삶의 질과 문화적 통합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자원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노인인구 집단이 겪는 독특한 여가제약과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 2) 여가 활동 취향의 개념

연구 결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의 개념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조건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으로 도출되었다. 향수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변화와 도전에 힘을 주는 요소이다(Al-Sammarraie & Ismael, 2022). 향수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적극적인 문화 적응과 통합을

돕는 촉진제로서 기능한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 융합을 통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에는 과거의 향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에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을 선택하였다.

둘째,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과정은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체화된 이전 거주국의 문화는 새로운 배경인 한국문화를 만나 융합적인 문화 배경을 형성한다. 이는 문화 적응 이론 중 통합유형(integr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주자가 자신의 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며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유형이다(하재필, 박성희, 2012). 여가는 이주민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정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우효동, 조희태, 외, 2016). 따라서 여가를 통한 한국 문화 적응과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전 거주국과 한국문화의 융합은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을 선택하였다.

셋째,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결과는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여가에 참여하는 하나의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라 할 수 있다. 내적동기는 여가에 참여할 때 심리적, 신체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여가를 지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손원호, 양재영, 2022). 여가 취향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를 결정하는 내적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며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융합하는 취향은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을 선택하였다.

##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과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건강’과 ‘여가 배경’으로 정립되었다.
- 둘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생활 여가 인프라’, ‘주요 타자’로 정립되었다.
- 셋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은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 정립되었다.
- 넷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적 요인은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으로 정립되었다.
- 다섯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의 개념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에게 적합한 여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여가 취향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여가 활동의 선택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사회적 적응에 기여하는 방향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 3.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1차 델파이 설문 결과 향수,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 성향, 자신감 부족이라는 심리 상태에 관한 개념어가 도출되었으나, 여가 취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해당 영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전문가집단의 특성상 내적동기보다 외적동기



의 영향에 더 주목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상태, 성격, 가치관, 경험, 그리고 태도는 여가 활동의 선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 내적동기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국가 구성비는 일정 국가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이 다수의 인구 비율을 가진 특정 국가에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 귀환하는 재외동포의 국적이 다양하기에 소수의 인구 비율을 가진 국가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체류 자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귀환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이 재외동포라고 불리는 F-4뿐 아니라 F-5, F-1, H-2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이 있으며,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 내에서 갖추어야 할 생활 기반과 기본 소양, 체류 기간, 국가 지원 등이 다르기에 세부적인 체류 자격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문화 적응 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동포들은 한국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이 여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여가 취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앞으로도 이들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용주(2008). 텔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수사과제보고서.
- 강희엽, 이철원, 이민석(2017). 노인들의 진지한 여가,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1(1), 1-14.
- 곽민정, 함보연(2023). 귀환 재외동포의 한국에서의 삶 연구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고려인과 사할린동포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10), 901-916.
- 김경식, 이경선(2014). 중요타자의 여가지지와 여가제약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125-139.
- 김경식(2020). 노인 여가 연구주제어의 사회연결망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9(3), 249-264.
- 김민규(2014). 한국형 여가중독 개념화를 통한 척도 개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4.
- 김민규(2018). 핵심면접집단과 텔파이조사: 질적연구에서 전문가 활용하기. 김영순(편),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민규(2020). 스포츠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간 융합연구 및 산업촉진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9(4), 283-293.
- 김민규, 박찬민, 김승환(20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포츠 미래변화 이슈 및 대응 전략.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 25(1), 27-55.
- 김수지(2022).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여가시간 사용: 동네응집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5, 87-116.
- 김영순, 최승은, 권도영, 임지혜, 박봉수, 최희(2020).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어: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이야기』, 서울: 북코리아.
- 김유나, 김성겸(2022). 노인 낚시 활동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의미. 한국스포츠학회지, 20(3), 261-273.
- 김지혜(2021).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법과정책연구, 21(1), 177-200.
- 김현덕(2012). 홀로된 노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



- 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 남혜경, 이미정(2016). 한국거주 고려인청년의 문화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21, 7(3), 109-125.
- 류루루, 김정섭, 김은지, 기희경, 김문정(2023).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주체성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한국어 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3), 55-71.
-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2 국민여가 활동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2b). 2022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태영, 손재영, 허중욱(2023). 신체적 여가활동이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1), 111-121.
- 박경하, 이병준(2022). 노인의 진지한 여가로서 리빙랩 활동 경험: 양산시 Y 기관 리빙랩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성인계속교육연구, 13(4), 63-97.
- 박봉수, 이미정(2016).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의미. 디아스포라연구, 10(1), 41-70.
- 박신규, 이채문(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귀환 이후 삶과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민족문화, 60, 3-36.
- 박신규(2019). 두 재외한인의 삶을 통해 본 귀환이주의 특징분석: 사할린 한인 S와 중남미 한인 P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디아스포라연구, 14, 151-173.
- 박신규, 이채문(2021). 귀환이주자로서 고려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경주시 성건동 거주 고려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5(2), 47-88.
- 박주연, 신형덕(2018). 문화자본론과 움니보어 이론의 실증적 비교. 문화정책논총, 32(2), 57-86.
- 박찬용(2018).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과제 연구. 재외한인연구, 44, 53-82.
- 박한울, 김선아(2020). 청년기 호주 이주자의 문화적응 요소 및 변화양상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3(1), 119-143.
- 박현남, 허수연(2023). 저소득 독거 노인의 여가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경험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9(2), 1-31.
- 박형아, 진기남, 구준혁(2021).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



- 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314-323.
- 박혜련, 허식(2019). 노인의 여가시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문화예술활동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7(4), 31-55.
- 배재윤(2023).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활동적 노화와 재사회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7(1), 55-77.
- 사카모토 세쓰오(2016). 『2020 시니어트렌드』. 서울: 한스미디어.
- 서대진, 장형유, 김명희(2016). 『인문사회 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과 사례별 활용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문식, 이셋별, 엄성원(2020). 문화공연 청중의 문화적 취향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2(4), 757-788.
- 서봉언, 이정란(2014).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문화자본이 문화예술교육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연구, 9(2), 57-75.
- 서종근, 왕영민, 심혜진(2023).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43(1), 265-281.
- 손원호, 양재영(2022). 대학교양체육활동에서 신입 여대생들이 인식한 내적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활동 지속성의 구조적 인과관계. GRI 연구논총, 24(4), 233-248.
- 송문선(2022). 가족관계 통제 하의 노인의 사회활동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2), 717-730.
- 송화성, 강영애(2021). 관광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가제약 비교 연구. 관광연구, 36(1), 89-111.
- 송화성, 이영안, 강영애(2020).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제약협상 유형과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을 이용하여. 관광연구, 35(3), 1-23.
- 송화성, 이운정(2023). 노년층과 영유아층의 여가제약에 대한 비교 연구.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1), 135-154.
- 신다현, 이상희, 허진무(2020). 노인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마스터즈 수영대회 참가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59(5), 241-257.
- 신아란, 권혁인(2023).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수준이 조직 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



- 향: 창의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5), 302-315.
- 안상경, 이병조(2013). 재외동포정책과 러시아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한민족민속문화 전승 연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공동체의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담기구의 모색. 재외한인연구, 31, 133-169.
- 오세숙(2023).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의 여가생활 특성 비교 분석. 여가학연구, 21(1), 59-73.
- 우효동, 조희태, 황선환(2016). 여가스포츠 참여와 문화적응.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 411-422.
- 유승호(2021). 『취향의 경제』, 서울: 도서출판 따비.
- 유은영, 진현정(2016).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7(6), 79-103.
- 이경희, 문보영, 이지원(2023). 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2), 163-176.
- 이상원, 최미나, 이승재(2022). 국내 일대학병원에서 강박장애 집단 기반 수용전념치료의 효과 검증. 생물치료정신의학, 28(1), 49-56.
- 이상희, 임수아, 허진무(20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노인의 합창단 활동과 회복 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0(4), 273-286.
- 이성은(2015). 노인의 인터넷 사용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지출의 매개효과. 여가학연구, 13(2), 49-67.
- 이수인, 강영신(2019). 지각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인의 강박성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자기비난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간이해, 40(2), 23-41.
- 이수진(2018). 히스테리 분석의 종결의 의미. 현대정신분석, 20(2), 47-91.
- 이승연, 박휴경, 박광호(2022). ‘건강백세운동교실’에서의 남성노인 소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2), 44-60.
- 이유진, 황선환, 김재운(2020).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자원 요인. 여가학연구, 18(1), 19-33.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이은현(2021). 측정도구의 심리계량적 속성 1: 내용타당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7(1), 10-13.
- 이정관(2023).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계간 외교, 147, 14-26.
- 이주연(2008). 재미한인의 여가, 그들의 민족정체성. 문화와 사회, 4, 6-42.
- 이현주, 신혜리, 한여정, 조민슬(2022). 중·고령자의 온라인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자원이 여가만족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가학연구, 20(2), 39-65.
- 이현진, 이상희, 허진무(2022). 노인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파크골프 참여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61(3), 177-192.
- 이혜미, 김영주(2016). 국내 프랑스인 학습자의 문화적응 전략과 한국어 접촉 양상. 한국어교육, 27(3), 261-287.
- 이훈지, 최혜경(2020). 중년 여성의 취향 소비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23(4), 59-77.
- 이희영(2023). 무용 예술 관람 소비에서 문화자본의 결정요인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92(3), 69-93.
- 임영신, 김매이(2023). 노인의 차별경험이 관광을 통한 여가와 삶의 만족,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21(3), 103-123.
- 임재구, 김선희(2006). 노인들의 여가와 스포츠활동에 의한 스포츠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3), 27-37.
- 임재구, 김덕중(2015). 여가스포츠 소비양식에 따른 취향성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1), 283-293.
- 임채완, 이소영(201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환경과 정책적 욕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3(1), 145-175.
- 장혜지, 장혜미, 김재범(2023). 한국의 문화자본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경제연구, 26(2), 3-29.
- 전형상, 김선희, 김지영(2020). 국내 노인의 시간운영조사 및 한·일 노인의 여가활동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9(5), 271-284.
- 정대영(2021). 경기도민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 분석, 경기연구원. [https://blog.naver.com/gri\\_blog/222597672273](https://blog.naver.com/gri_blog/222597672273).



정선미, 이윤석(2022). 은퇴한 노인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동반자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4(1), 101-138.

정연학(2015).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과 외국인 자국 전통문화 전승 실태. *한국민속학*, 62, 35-74.

정은영(2020). 한국 남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 *한국노년학*, 40(3), 443-458.

정찬우, 장인수(2023).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노인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통계연구*, 28(1), 70-97.

조광익(2013). 여가 소비 및 여가 취향에 관한 연구동향: 예비적 탐색, *관광연구*, 27(6), 137-161.

조일동(2015). 영구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7, 31-59.

조희연(2010). ‘한국사회체제논쟁’ 재론: 97년체제의 ‘이중성’ 과 08년체제하에 서의 ‘헤게모니적 전략’ 에 대한 고민.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13-52.

주익현, 주이화(2021). 유급노동·가사·돌봄·여가시간사용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1), 109-13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7). 7월 통계월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9). 9월 통계월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최순화(2020). 여가태도와 여가소비의 관계 및 소득계층의 조절효과 연구. *인문사회* 21, 11(3), 723-736.

최순화(2021). 시니어의 문화예술 소비 다양성이 여가생활 만족, 건강 인식, 행복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24(3), 173-189.

최현주, 조성식(2017).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스포츠 제약과 심리적 행복감 및 문화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6(3), 185-199.

통계청(2021). 주요 인구지표.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

통계청(2022a). 노인복지 서비스 희망분야(만 65세 이상). 통계청.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2&tblId=DT\\_212006\\_2013A025&dbUser=NSI\\_I](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2&tblId=DT_212006_2013A025&dbUser=NSI_I)



N\_212.

- 통계청(2022b).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통계청.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7&act=view&list\\_no=417775](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7&act=view&list_no=417775).
- 하재필, 박성희(2012). 스포츠를 통한 이주민의 문화적응 및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체육과학연구*, 23(1), 105-120.
- 하준광(2014). 해외이주 한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문화적응의 관계. *한국사회정책*, 21(4), 137-164.
- 한진오, 정득, 이종석(2019).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가정책만족의 매개효과. *여가학연구*, 17(2), 61-85.
- 현재민, 김지유(2023).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운동지속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7(2), 67-80.
- 홍경찬, 장명수, 김창민, 이우범, 홍유식, 한영환(2023). IQR 알고리즘의 사분범위 조정을 활용한 당뇨 예측 방법. *전자공학회논문지*, 60(3), 31-39.
- 홍서연, 김미량(2020). 보편적 노후준비 척도 개발. *여가학연구*, 18(4), 35-51.
- 홍세희, 조기숙(2017). CIS 고려인의 전통춤 계승의 무용사적 의미. *무용역사기록학*, 46, 163-188.
- 황혜선, 이윤석(2021). 노인1인가구의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의 탐색. *보건사회연구*, 41(4), 88-107.
- A. Skandalis., J. Byrom., & E. Banister. (2017). Spatial taste formation as a place marketing tool: the case of live music consumption. *Journal of Pla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10(5), 497-503.
- B. A. Mitchell., A. V. Wister., & I. A. Fyffe. (2021). Leisure time satisfaction and activity preferences among ethnically diverse aging parents in Metro Vancouver.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36, 387-406.
- C. H. Lawshe.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D. W. Crawford., G. Godbey.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 E. Bertacchini., A. Venturini., & R. Zotti. (2021). Drivers of cultural participation of immigrants: evidence from an Italian survey.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44.
- E. Kim., D. A. Kleiber., & N. Kropf. (2018). Leisure activity, ethnic preservation, and cultural integration of older Korean Americans.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Asian American elderly*, Routledge, 107-129.
- G. J. Stalker. (2011). Leisure diversity as an indicator of cultural capital. *Leisure Sciences*, 33(2), 81-102.
- H. M. Hu. (2021). Leisure activity demand of older adults: A case study. *Ageing International*, 1-18.
- I. Pareja. (2003). The delphi method (El metodo delphi).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 J. Crisp., D. Pelletier., C. Duffield., A. Adams., & S. Nagy. (1997). The delphi method. *Nursing Research*, 46(2), 116-118.
- J. I. Hwang., Y. J. Choi., & M. H. Youn. (2015). A study on evaluation of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of rural area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22(3), 355-363.
- J. I. Kosberg., & J. L. Garcia. (1985). Issues in assessing community resources for the leisure-time needs of the elderly. *J. Soc. & Soc. Welfare*, 12, 777.
- J. Kim., Y. Suh., & J. Kim. (2019). Identifying leisure constraints associated with acculturation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Int J Qual Stud Health Well-being*. 14(1), 1655378.
- J. Levick., K. Broome., M. Gray., T. Theodoros., T. Morrison., & M. Kar Ray. (2023). Investigation of the consumer perspective on leisure in mental health inpatient units.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15394492231175067.
- L. M. Miller., & C. L. Carpenter. (2009).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22(4), 9-12.



- M. Kaplan. (1960). The Uses of Leisure. I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 N. N. Al-Sammarraie., & N. A. Ismael. (2022). Cultural Adaptation. Al-ādab, 2(142):37-46.
- P. Belo., R. Pocinho., & E. Navarro. (2016). Analysis of the impact of leisure on well-being and distress in ageing.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chnological Ecosystems for Enhancing Multiculturality, 425-429.
- P. Bourdieu. (1979). Distinction. Routledge, 최종철 역(2005), 『구별짓기』, 서울: 새물결.
- R. Stebbins. (2006). Serious leisure : a perspective for our time. Paperback, 최석호, 이미경, 이용재 역(2012). 『진지한 여가』, 서울: 여가경영.
- S. Cameron. (2011). Overview of the economics of leisure.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 T. Sablatzky. (2022). The delphi method. Hypothesis: Research Journal for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34(1).
- Y. Yan., X. Wang., R. Zhang., & Y. Zhang.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ld leisure journal, 65(1), 119-142.



[부록 1] 1차 델파이 설문지\_노인 전문가용

### 델파이 조사 참여 방법

델파이 조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예견하는’ 가장 적합한 추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 문제 현상에 관한 분류 기준(taxonomy) 개발, 척도 개발과 같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때 활용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반복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합리적 방식으로 도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초안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연구 문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참고 자료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에 관한 응답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1차 델파이 질문지의 응답에 따라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1차 질문지에서 범주화한 내용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단계입니다. 질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고 질문에 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수정·삭제·추가 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 질문지 응답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차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지며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와 동일하게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델파이 조사의 종결 수준은 <평균 4.000이상, CVI 값 .780 이상, IQR값 1.000이하, CV값 .5000이하>일 때 종결하게 됩니다.

### 델파이 질문지 수령 및 회수 방법

※ 최대 3차에 걸쳐 진행될 델파이 질문지 수령과 회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델파이 질문지 회수:** 1차 델파이 질문지에 응답하시고 연구자의 메일로 재전송 부탁드립니다.
2. **2차 델파이 질문지 수령 및 회수:** 전문가님들께서 보내주신 1차 델파이 질문지를 회수하고 분석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질문지를 E-mail 또는 우편 중 선택하신 방법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보내주신 1차 델파이 질문지 분석은 회수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해 2차 질문지를 전송해 드리면 질문에 응답하여 연구자의 메일로 재전송을 부탁드립니다.
3. **3차 델파이 질문지 회수 및 수령:** 델파이 조사가 3차까지 이루어질 경우, 1, 2차 델파이 질문지 수령 및 회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령 및 회수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곽민정



**텔레파이 자문위원 승낙서**

※ 본인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숙지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성 명		연 령	
전 공		학 위	
현 근무처		직 책	
현재 관심 연구 분야			
연구 기간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주소	우편 수령이 아니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차 조사지 수령방법	E-mail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 요인 탐색』 연구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여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이들이 여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취향을 개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향은 여가 활동을 선택하는 동기가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우연적이지 않으며, 사회구조적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가 취향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 2. 용어의 정리

- **귀환 재외동포 노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란 ‘한국으로 귀환한 지 12개월 이후인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하여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중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국적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 또는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 **여가**: ‘여가(leisure)’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2022 국민 여가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른 여가 활동 유형은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 활동의 8가지 대범주로 나누어진다.
- **취향**: ‘취향(taste)’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쏠리는 방향’을 말한다. 취향은 범주화<sup>4)</sup>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쉽게 변한다는 특성이 있다. 어떠한 것이 취향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기보다, 취향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것과 비교 대상이 된다. 취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적다. 취향은 자신에 관한 예측과 기억이 중요하며, 취향과 선택은 쌍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취향은 습득하는 것인데, 어떠한 것에 더 노출될수록 취향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4) 여기에서 범주화란 일반적인 범주화와 달리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파란색 자동차를 좋아하지는 않는다.”와 같은 범주를 의미한다.

※ 다음 델파이 조사 설문지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문항 질문에 앞서 전문가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 자료로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용이니 이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질문]에 관한 의견을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 **노인의 여가 취향 개념**

저자	주제	내용																																	
사카모토 세쓰오 (2020)	일본의 노인 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전에는 50세를 넘기면 누구나 '노인'을 향해 달려갔다. 적어도 걸모습을 보면 모두가 똑같아 보이고 개성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노인'. '고령자'가 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현재 이 연령대의 생활자는 '회사를 위해, 일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라는 그때까지의 짐을 일단 내려놓은 뒤에는 좀 더 '자신답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개성의 소실'에서 '개성의 복권(復權)'으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64p</li> <li>지금의 40~60대는 몇 살이 되더라도 젊게, 긍정적인 의식을 유지하며 살고 싶어 한다. 119p</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대에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멋진 어른이고 싶다(어른이 되고 싶다). 60.0%</li> <li>- 50대를 넘겼으면 더는 나이를 먹지 않는 나이이고 싶다(내가 되고 싶다). 50.9%</li> <li>- 몇 살이 되더라도 젊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64.5%</li> <li>- 몇 살이 되더라도 젊게, 긍정적인 의식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 73.3%</li> </ul> <hr/>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75&gt;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조사, 2015년, 40~69세 남녀, 전국 2,700명 대상</p>																																	
2022 국민 여가 활동 조사 보고서	여가 활동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복수 응답)</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TV 시청</th> <th>산책 및 걷기</th> <th>모바일 콘텐츠 / VOD 시청</th> <th>잡담/통화하기/문자 보내기</th> <th>인터넷 검색/1인미디어 제작/SNS</th> <th>쇼핑 / 외식</th> <th>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th> <th>게임</th> <th>음악 감상</th> <th>음주</th> </tr> </thead> <tbody> <tr> <td>60대</td> <td>83.0</td> <td>61.8</td> <td>23.5</td> <td>34.3</td> <td>17.0</td> <td>22.2</td> <td>20.4</td> <td>2.6</td> <td>8.5</td> <td>14.7</td> </tr> <tr> <td>70세 이상</td> <td>90.7</td> <td>76.3</td> <td>9.0</td> <td>37.5</td> <td>4.5</td> <td>20.8</td> <td>26.4</td> <td>0.5</td> <td>5.7</td> <td>9.2</td> </tr> </tbody> </table>	구분	TV 시청	산책 및 걷기	모바일 콘텐츠 / VOD 시청	잡담/통화하기/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1인미디어 제작/SNS	쇼핑 / 외식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	게임	음악 감상	음주	60대	83.0	61.8	23.5	34.3	17.0	22.2	20.4	2.6	8.5	14.7	70세 이상	90.7	76.3	9.0	37.5	4.5	20.8	26.4	0.5	5.7	9.2
구분	TV 시청	산책 및 걷기	모바일 콘텐츠 / VOD 시청	잡담/통화하기/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1인미디어 제작/SNS	쇼핑 / 외식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	게임	음악 감상	음주																									
60대	83.0	61.8	23.5	34.3	17.0	22.2	20.4	2.6	8.5	14.7																									
70세 이상	90.7	76.3	9.0	37.5	4.5	20.8	26.4	0.5	5.7	9.2																									
송문선 (2022)	노인의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년기의 여가는 청·장년기의 여가와와는 의미를 달리한다. 잠시 여유를 찾는 시간이 아닌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여가를 자발적인 선택의 행위로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노년기의 의미가 결정된다. 노인의 여가는 공식적인 사회적 의무를 동반한 사회적 역할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 활동, 즉 여가 활동을 통하여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과 우울을 해소하고 자기 존중과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생활 만족 및 행복감을 추구한다.</li> </ul>																																	



■ 노인 전문가 개별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의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이유에 관해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활동성(건강 상태), 경제력: 활동성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활동성과 경제력이 필요한 여가 활동 선택이 불가하므로 취향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 공통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 결정되는 요인 어떤 것일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 산 기간, 귀환 전 국가에서의 삶의 배경.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2] 1차 토폴이 설문지\_여가 전문가용

● 노인의 여가 취향 개념

저자	주제	내용
Pierre Bourdieu (1979)	문화적 취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정통적 취향, 즉 「피아노 평균율」, 「푸가의 기법」, 「왼손을 위한 협주곡」 또는 회화의 경우에는 브뤼겔이나 고야의 작품으로 대변되는 정통적인 작품에 대한 취향을 들 수 있다.</li> <li>• ‘중간층’ 취향으로, 「랩소디 인 블루」, 「헝가리 광시곡」 그리고 회화에서는 유티리요, 뷔페 또는 심지어 르느와르와 같은 주요 예술의 하위 작품이나 상층분야의 자크 브렐, 질베르 베꼬와 같은 하위 예술의 주요 작품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li> <li>• 마지막으로 ‘대중적’ 취향이 있는데, 이것은 ‘경’음악이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라 트라비아타」 또는 「아를르의 여인들」처럼 통속화되었다는 이유로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고전음악 특히 루이스 마리아노, 게파리, 페츄라 클라크의 상층처럼 예술적 야심이나 욕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을 선택하는 취향으로 나타난다.</li> <li>• 사회적 위치가 변할 때마다 아비투스( habitus)가 생산되는 조건이 새롭게 변하는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따라서 각각의 아비투스( habitus)에 고유한 유효성을 고립시킬 수 있듯이 각 실천을 재원에 맞춰 객관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높낮이가 아니라 취향 즉 필요 취향 또는 사치 취향이다.</li> <li>•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전의 식욕과 쾌락을 희생할 줄 아는 ‘검소한’ 취향은 밴담처럼 쾌락과 고통, 이익과(예를 들면 건강과 미용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기를 거부하는 민중 계급의 본능적 물질주의와 대립된다.</li> </ul>
서문식 외 2 (2020)	문화적 취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공연 청중의 문화적 취향은 1) 기호성 취향, 2) 감수성 취향, 3) 향수성 취향, 4) 융·복합성 취향, 5) 본질성 취향, 6) 쾌락성 취향, 7) 교육성 취향, 8) 대중성 취향의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 </ul>
임재구, 김덕중 (2015)	여가 스포츠 취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인 1은 고급형 여가스포츠 취향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대중적 여가스포츠 취향 선호유형으로 여가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축구, 농구, 탁구), 대중계급이 선호하는 대중형 여가스포츠 취향성향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여가스포츠 매니아 취향으로 명명하였다.</li> </ul>
임재구, 김선희 (2006)	노인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urdieu는 학력, 가족관계, 동호회, 친목회 같이 인맥, 연출 등 집단과 사회연결망 내에서의 위치와의 관계를 사회자본, 교양, 지식, 기술, 취향, 예술수집품, 학위, 졸업장, 자격증 등을 문화자본, 금전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화폐, 건물, 부동산 등, 모든 재화를 총동원한 물질적 총체를 의미하는 자본을 경제자본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신, 존망, 명예, 명성 등을 상징자본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상징자본을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행위자 역할을 하는 구조로 보았다. 이러한 Bourdieu의 이론을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경우에 적용하였는데, 노인들의 여가와 스포츠활동 구성원들간에 사회, 문화, 경제자본 등이 분포하고, 신체자본의 구조들은 노인들의 여가와 스포츠활동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선택들을 결정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다 (Bourdieu, 1979).</li> </ul>



■ 여가 전문가 개별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가 취향이 결정될 때 결정요인과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부모의 학력, 부모의 경제력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인의 여가 제약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기기 접근성의 부족: 젊은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튜브나 플랫폼 접근이 쉬운 편이지만, 나이든 노인들은 플랫폼 접근이 쉽지 않음.



■ 공통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 결정되는 요인 어떤 것일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재외 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 산 기간, 귀환 전 국가에서의 삶의 배경.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3] 1차 텔파이 설문지\_재외동포 전문가용

● 재외동포 여가 개념

저자	주제	내용
박신규, 이채문 (2021)	고려인 생활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편 경주 거주 고려인 지난 3개월(2020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동안 받은 월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 44.8%가 100~199만 원을 받았으며 37%가 200~299만 원을 받았다. 700만 원 이상은 8.4%를 차지하였고 99만 원 이하도 5.2%로 나타났다.</li> </ul>
남혜경, 이미정 (2016)	고려인 문화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 차원의 문화 적응 요인으로는 첫째,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 둘째, 가치관의 차이 셋째, 정체성의 갈등이 있었다. 사회적 차원의 문화적응 요인으로는 첫째, 음식에의 적응. 둘째, 상하관계가 분명한 조직문화 적응 셋째, 봉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있었다.</li> </ul>
박찬용(2018)	사할린 한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적 측면은 어느 정도 러시아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제사를 지내며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며 우리 민족끼리 결혼하고 쌀밥, 김치, 나물, 두부, 미역국 등을 일상적으로 먹으며 고추, 간장, 참기름 등 전통 양념을 사용한다. 한소 수교 후 한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김밥, 떡 등 현대화된 한국음식도 먹고 있다.</li> </ul>
최현주, 조성식 (2017)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 스포츠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여가스포츠 참여에 있어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의 즐거움과 자신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 <li>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여가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동료들 각각의 과다 업무량과 거리와 교통,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의 상승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적 존재감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문화적응에 있어 주변화가 일어나는 근원일 것이라 사료된다.</li> <li>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언어소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li> </ul>



■ 재외동포 전문가 개별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환한 재외동포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그들만의 독특한 여가 과정·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한국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한국문화에 동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것 같다.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의 여가 활동’에 동화되려 할 것 같다.

[질문 2] 전문가님께서 귀환 재외동포가 경험하는 여가(문화) 제약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정보의 제약: 단순 여가 활동이 아닌 전시회, 공연 등의 정보가 필요한 여가 활동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다.



■ 공통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 결정되는 요인은 어떤 것일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 산 기간, 귀환 전 국가에서의 삶의 배경.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4] 2차 델파이 설문지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전문가님들께서 보내주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A.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요인의 하위영역 분류, B.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했습니다. 델파이 조사 응답에서 추출한 개념어를 분류하여 하위 범주를 도출했고, 도출한 하위 범주를 분류하여 상위 범주를 도출했습니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 응답에서 추출한 개념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설문지 회수를 마치고 확인 결과 타당도에 3점 미만으로 기재하시고, 해당 문항의 수정 지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지 않은 설문지가 많아 해당 문항을 타당도 있게 수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2차 설문지를 다시 보내드리오니 **설문지 응답을 작성하실 때 3점 이하의 점수에 표기하실 때는 수정 지시사항 또는 삭제 의견을 꼭 기재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본 연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로 각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실 때는 문항에 제시된 요인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만을 평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의 하위영역 분류**

전문가님께서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와 문헌 고찰로 본 연구자가 도출한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의 개념어와 그것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 상위 범주가 타당한지에 관해 평정을 부탁드립니다. 타당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고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1. 개인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2	건강	
정신적 건강	1		
노후 준비도	6	여가 자원	개인적 요인
한국어 숙련도	4		
여가 활동 시간	1		
향수(鄉愁)	3	심리	
자신감 부족	2		
강박적 성향	1		
히스테리적 성향	1		



1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2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정신적 건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 개념어 범주화: 건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건강’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4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노후 준비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노후 준비도 척도: 가족관계, 여가 활동, 경제력, 대인관계, 심리 건강, 신체 건강, 정서 건강의 범주로 나뉜

홍서연, 김미량(2020). 보편적 노후준비 척도 개발. 여가학연구, 18(4), 35-51.

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어 숙련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6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7. 개념어 범주화: 여가 자원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8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 대한 향수(鄉愁)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9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서툰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 문헌	강은주, 김연희, 이희선(2015). 여성고령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협상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9(4), 87-116.				

10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강박적 성향을 보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익숙해진 여가 활동을 취향으로 인식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강박 성향은 강박사고와 동반하는 불안과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수인, 강영신(2019). 지각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인의 강박성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자기비난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간이해, 40(2), 23-41.				



11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히스테리적 성향을 보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은 과거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을 취향으로 인식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히스테리는 과거의 억압으로 인해 만족되지 못한 욕망을 통하여 대타자를 향한 “욕망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을 찾아 나간다.				
	이수진(2018). 히스테리 분석의 종결의 의미. 현대정신분석, 20(2), 47-91.				

12. 개념어 범주화: 심리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향수(鄉愁)’,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 의 ‘심리’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13. 하위 범주 범주화: 개인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건강’, ‘여가 자원’, ‘심리’의 ‘개인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2. 사회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물리적 접근성	5	생활 여가	사회적 요인
프로그램 전문성	1	인프라	
현재 동반자	3	주요 타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3		
인적 네트워크	2		
이성 노인과의 관계	1		

14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 근방 여가 시설 유무, 시설까지의 거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1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역에서 시행하는 여가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16. 개념어 범주화: 생활 여가 인프라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의 ‘생활 여가 인프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17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현재 동반자와 그의 여가 취향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18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p>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생애 주기별 동반자는 그들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p> <p>⇒ 수정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p> <p>의견:</p>	1	2	3	4	5

19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p>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p> <p>⇒ 수정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p> <p>의견:</p>	1	2	3	4	5

20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p>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새롭게 형성한 한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p> <p>⇒ 수정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p> <p>의견:</p>	1	2	3	4	5

21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p>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p> <p>⇒ 수정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p> <p>의견:</p>	1	2	3	4	5

참고문헌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 교실 참여에서 여성 노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여성 노인이 반겨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서 남성들은 텃세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하며, 시설 이용 중단은 원인으로 교류상의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승연, 박휴경, 박광호(2022). '건강백세운동교실'에서의 남성노인 소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2), 44-60.

22. 개념어 범주화: 주요 타자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p>'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주요 타자'로의 범주화는</p> <p>⇒ 수정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p> <p>의견:</p>	1	2	3	4	5



23. 하위영역 범주화: 사회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생활 여가 인프라', '주요 타자'의 '사회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 문화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기존 문화 환경	2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2		
정치·사회 체제	1		
문화 이해·적응도	3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2		
여가문화 인지	2		
문화 차이	2		
노인 여가문화 정책	1		

24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적 배경 및 환경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2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사할린 한인은 춤, 중국동포는 마작과 같이 국가에 따라 그들의 전통적 여가 활동이 있고, 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안상경, 이병조(2013). 재외동포정책과 러시아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한민족민속 문화 전승 연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공동체의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 새로운 전담기구의 모색. 재외한인연구, 31, 133-169.  
 정연학(2015).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과 외국인 자국 전통문화 전승 실태. 한국민속학, 62, 35-74.

26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정치·사회 체제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b>27.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b>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 체제’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b>28</b>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문화 이해·적응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문화 적응은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 적응으로 구분되며 사회문화 적응은 타 문화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의미하며, 심리 적응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의미한다.				
	박한울, 김선아(2020). 청년기 호주 이주자의 문화적응 요소 및 변화양상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3(1), 119-143.				
<b>29</b>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새로운 여가문화 환경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b>30</b>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여가문화 인지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b>31</b>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2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3. 개념어 범주화: 귀환 후 한국의 문화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여가 문화 인지’,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4. 하위영역 범주화: 문화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의 ‘문화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 정보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빈도수	상위 범주
프로그램 정보	6	지식	8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	2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2	시기에 따른 경험	4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1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1			

3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6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한국의 여가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7. 개념어 범주화: 지식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8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은 귀환 후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39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경험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40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참여 경험과 빈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41. 개념어 범주화: 시기에 따른 경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활동’,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경험’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42. 하위영역 범주화: 정보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의 ‘정보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 B.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전문가님들께서 답변해주신 1차 델파이 조사 내용을 분석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술어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여가 활동 시간에</li> <li>•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li> <li>• 한국에 귀환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화하여</li> <li>•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li> <li>• 잠재적 취미로</li> <li>• 과거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 해봤던 여가 활동을</li> <li>• 여가문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나 참여하는</li> <li>• 거주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선호하는 놀이 활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 찾기</li> <li>•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하는 것이다.</li> <li>• 행동이다.</li> <li>• 활동이다.</li> <li>• 준비하고 있다.</li> </ul>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	→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님들께서는 본 연구자가 도출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이 타당한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타당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시고 의견을 기술해서 주시면 됩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1	2	3	4	5
의견:					

긴 설문 의 답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민정 올림

[부록 5] 3차 델파이 설문지

델파이 3차 설문지

- 본 3차 설문지는 전문가님께서 보내주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델파이 종결 수준(평균 4.0 이상, CVI값 .750 이상, CVR값 .780, IQR값 1.00 이하, CV값 .500 이하)에 도달하지 못한 설문 문항을 여러 자문위원님께서 주신 수정, 추가, 삭제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한 내용에 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2차 설문에 참여해주셨던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설문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 지시사항과 삭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결 수준에 다다른 설문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판단 아래 설문을 종결하였습니다.

종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설문은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수정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삭제 지시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설문 중 몇 개의 문항은 연구자와 교수 2인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가 있는 설문은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재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구성한 설문에 관하여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타당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고 타당도가 **3점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질문에는 ‘수정 또는 삭제’ 표시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의견을 적어주시거나,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여서 주시면 됩니다.

더운 여름에 시작한 연구가 더위가 가신 가을까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긴 기간 동안 본 연구자의 연구에 전문가로서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고, 연구자를 응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곽민정 올림



**A.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요인의 하위영역 분류**

●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 중에서 여가 자원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1) 일반적으로 여가학에서 여가 자원의 하위변인은 여가시간, 여가시설, 여가 프로그램, 여가 비용, 여가지도자, 여가 정보, 경제력, 동반자 등을 일컬으며, 범주화에는 무리가 있다.

2) 사회적 요인에 포함된 주요 타자는 여가 자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류를 더 섬세하게 해야 한다.

가 있었습니다.

위 의견에 따라 수정한 하위 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관한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주화: 여가 자원의 델파이 2차 결과	공정률				
	평균	CVR	CVI	IQR	CV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의 타당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67	.33	.67	1.500	.334
수정된 범주화: 여가(를 위한) 배경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노후 준비도',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의 범주화는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1	2	3	4	5

의견:

위의 문항 중 괄호 안에 들어간 (를 위한) 삭제 여부를 함께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삭제가 타당하다.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범주화 중 괄호 안의 (를 위한) 삭제 여부		

의견:

●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개념어 중 한국으로 귀환 이주 전 인적 네트워크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연구자와 교수 2인과의 협의 결과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질문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텔파이 2차 결과	공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89	.33	.67	1.500	.201
<b>수정</b>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b>귀환 전 거주국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b>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p>여전히 사할린에 가족들을 남기고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결정하였다. 응답자 중 사할린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165명 (88.2%)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22명 (11.8%)이다. 5명 이상 사할린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102명으로 나타났다. 사할린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자녀들과 연락을 한다.</p> <p>임채완, 이소영(201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환경과 정책적 욕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3(1), 145-175.</p>				



사회적 요인의 개념어 중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가는 다양한 활동을 동반하며 활동에 따라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89	.33	.67	2.000	.271
수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p>혼자가 된 많은 수의 노인이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또는 인생의 동반자로 이성 교제를 원하며, 이성 교제는 삶의 활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김현덕. (2012). 홀로된 노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p> <p>참고문헌 (남성)연구 참여자들은 운동 교실 참여에서 여성 노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여성 노인이 반겨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서 남성들은 텃세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하며, 시설 이용 중단은 원인으로 교류상의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한다.</p> <p>이승연, 박휴경, 박광호. (2022). ‘건강백세운동교실’에서의 남성노인 소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2), 44-60.</p>					

●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정치·사회 환경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 1) 사회체제에 관하여\_명확한 개념 제시가 되지 않았다.
  - 2) 여가 활동은 자유로운 영역이기에 정치·사회체의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
- 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체제의 개념을 참고문헌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더하여, 2023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는 외국 국적 동포의 84%가 사회주의 국가 출신으로 한국과 다른 사회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자와 교수 2인과의 협의 결과 **사회체제 변화는 그 과정에서 여가 활동이나 문화 향유 취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다시 한번 타당성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정치·사회 체제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56	.11	.56	1.000	.248
<b>수정</b>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b>사회체제</b> 는(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등)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손호철은 사회체제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나누고, 그에 기초하여 “한국의 사회 체제는 극우 반공 체제인 48년 체제, 개발 독재체제인 61년 체제, 이 중 정치 체제를 민주화한 87년 체제(발전국가 체제)를 해체해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한 97년 체제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한다.				
조희연(2010). "한국사회체제논쟁" 제문.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13-54.					



문화적 요인 중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의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1) '귀국 전 여가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있었습니다.

는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의 델파이 2차 결과	공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 체제'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3.56	.56	.78	1.000	.248
<b>수정</b>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 체제', '귀국 전 여가 활동'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 문화'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문화적 요인 중 노인 여가문화 정책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1)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

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델파이 2차 결과	공정률				
	평균	CVR	CVI	IQR	CV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00	.33	.67	2.000	.217
<b>수정</b>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여가와 관련한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 정보적 요인

정보적 요인 중 하위 범주인 지식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진지한 여가는 최근 연구가 늘고 있는 분야로 마스터즈 수영대회 참가의 의미(신다현 외, 2020), 파크골프 참여의 의미(이현진 외, 2022), 낚시 활동의 의미(김유나 외, 2022) 등의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진지한 여가로서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의미(박봉수 외, 2016)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의 진지한 여가 활동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bbins(1992)가 정의한 진지한 여가 속성 전부를 지식과 관련한 범주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하위 범주의 범주화 과정 중 범주의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아래에 범주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의 범주화 내용을 차등하여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념어 범주화: 지식의 델파이 2차 결과	공정률				
	평균	CVR	CVI	IQR	CV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3.89	.56	.78	1.000	.239
<b>수정된 범주화</b>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인지'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여가 역량 개발'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input type="checkbox"/> , 삭제 <input type="checkbox"/> , 추가 <input type="checkbox"/>					
의견:					
참고문헌	Stebbins(1992)가 정의한 진지한 여가의 6가지 속성은 인내심(perseverance), 커리어 발전 (career development), 상당한 노력(significant effort), 지속적인 혜택 (durable benefits), 독특한 기풍(unique ethos), 강한 정체성(strong identification)으로, 이러한 6가지 속성은 일상적 여가나 이벤트성 여가와 진지한 여가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이현진, 이록빛, 허진무(2022). 노인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파크골프 참여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61(3), 177-192.				

긴 기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민정 올림



## Abstract

Min-Jeong Kwak

Master THESIS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nd concept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am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who are characterized by both aging and multicultural societ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Delphi method to conduct the research.

The first Delphi survey provided an open-ended survey, including previous studies, to collect the free opinions of experts on the factors and concepts of taste am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The survey of a 10-member expert group resulted in 28 factors and concept definitions for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The second Delphi survey was composed of a closed-end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e factors and concepts derived from the first surve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factors and concept definitions for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The tools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item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oncentration tendencies, and positive rates. Items that were not proven valid were revised or delet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 The revised items were used to compose a questionnaire for the third Delphi survey.

The third Delphi survey used the items that were not proven valid in the second survey to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third survey, items that were not proven valid were ultimately deleted at the discretion of the expert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am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are personal factors, social



factors, cultural factors, and informational factors. Personal factors included health, inclu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leisure background, including economic statu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leisure activity time. Social factors included major others, including life cycle companions, human networks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efore returning to Korea, and new human networks after returning to Korea, including living leisure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accessibility and program expertise. Cultural factors included leisure cultur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efore returning, including existing cul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al leisure activities, leisure culture in Korea after returning, including cultural understanding and adaptation, new cultural environment, cultural differences, and senior leisure culture policy. Informational factors included knowledge, including program information and exploration for serious leisure activities, and experience over time, including leisure experienc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efore returning to Korea, leisure activities in Korea before overseas migration, and new leisure activities in Korea after returning.

The concept of leisure taste am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was defined as ‘taste is a factor that determines participation in new leisure activities in the midst of the fusion of the culture of the previous country of residence, which can remind us of the past nostalgia, and Korean culture.’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have results on the personal intrinsic motivation for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and the focus of the study may have been on a specific country with a large population ratio, and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esidence status. Howe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fines various factors and concepts related to taste, which can be one of the motivations for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to decide on leisure, and it is a basic data for leisure policy and leisure program development and research for them.

Keywords: Returning Overseas Koreans Elderly, Leisure, Taste, Delphi Method